



자그레브
크로아티아

Welcome to

ZAGREB

크로아티아 수도

차례

- 3 소개하기
여행하기 딱 좋은 곳
- 6 자그레브에 대해
재미난 사실과 수치
- 8 시간여행
과거의 자그레브 이야기
- 14 자그레브
Top 10
- 18 초록빛 자그레브
자연스럽게 만나지는
자그레브의 좋은 점
- 28 숨겨진 자그레브
여유로이 열정적인 도시
- 36 문화와 예술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들
- 44 자그레브의 이벤트
매일 누군가를 위한 어떤 것
- 56 음식과 음료
찰나의 시간을 위해
- 62 쇼핑과 오락
자그레브를 집으로 데려가기
- 68 어린이를 위한
자그레브가능성이 무한한 도시
- 72 자그레브에서의 24시간
- 76 자그레브에서의 72시간
- 82 자그레브 주변지역
아름다운 추억의 순간
- 91 숙박시설
잠만 자는 곳이 아닌
여행이 주는 또다른 재미
- 92 유용한 정보

유용한 정보

본 책자의 92페이지에는 여행정보센터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WWW.INFOZAGREB.HR

주요 유럽도시와 거리

- Zagreb - Vienna / 375 km 자그레브 - 비엔나
- Zagreb - Budapest / 345 km 자그레브 - 부다페스트
- Zagreb - Venice / 380 km 자그레브 - 베니스
- Zagreb - Belgrade / 395 km 자그레브 - 베오그라드
- Zagreb - Ljubljana / 140 km 자그레브 - 류블랴나
- Zagreb - Split / 410 km 자그레브 - 스플리트

위치

자그레브는 크로아티아의 북서부에 위치하고 있다. 메드베드니차 산의 남쪽을 등지고 있으며, 앞으로는 사바 강이 흐른다.



- FRA (France, 프랑스)
- SWISS (Switzerland, 스위스)
- GER (Germany, 독일)
- AUS (Austria, 오스트리아)
- ITA (Italy, 이탈리아)
- SLO (Slovenia, 슬로베니아)
- B&H (Bosnia and Herzegovina,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 MNE (Montenegro, 몬테네그로)
- SER (Serbia, 세르비아)
- HUN (Hungary, 헝가리)

시작하기

여행하기 딱 좋은 곳

더 알아보기



자그레브는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 여행을 다녀온 친구가 알려줬던 자그레브, 어느 인터넷 사이트의 사진에서 본 자그레브, 그리고 이제 이 책자에서 알아가게 될 자그레브까지.

자그레브를 방문했던 사람의 기억 속 자그레브는 서로 다른 모습과 느낌을 갖고 있을 것이다. 매우 활기찬 수도, 휴먼스케일에 맞게 잘 만들어진 도시, 혹은 가능성이 무한한 대도시 뿐만아니라 자연 속의 초록빛 자그레브를 떠올리기도 있을 것이다. 자그레브는 이 모든 모습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어떤 때는 격식있는 행정수도였다가, 긴장을 풀고나면 자그레브 특유의 느긋한 분위기가 또 다른 매력을 발산한다. 멈춤없이 바쁘기만 한 도시의 거리를 지나다가도 모퉁이만 돌면 새들이 지저귀는 한가로운 시골길 같은 거리를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자그레브의 도시구성은 이 도시의 다양한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경사진 언덕길 사이에 자리잡은 오랜 역사의 구시가지는 주변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고, 넓은 대로가 있는 신시가지는 강 옆의 평지에 위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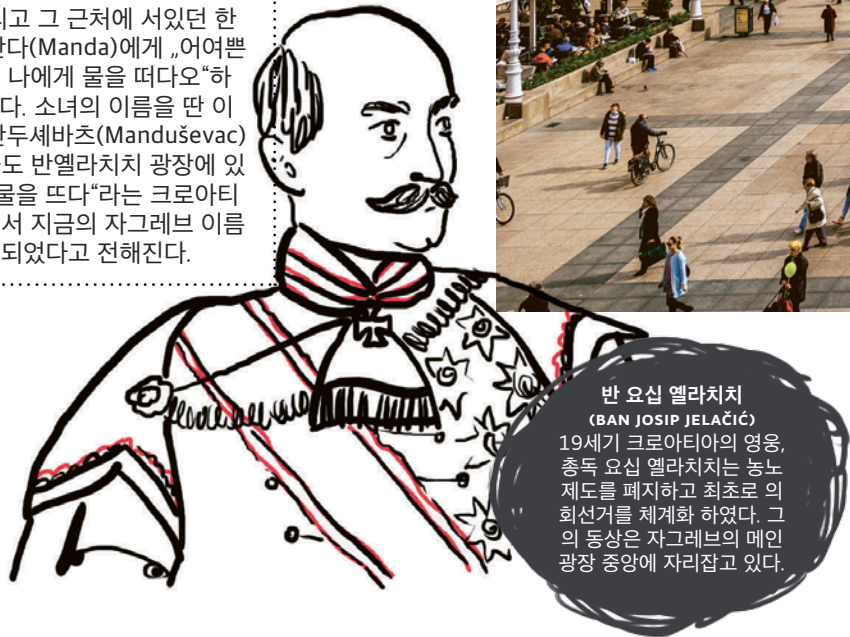
명확하게 자그레브의 성격을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지도상의 자그레브는 내륙 도시지만, 이 도시의 삶에 지중해의 바닷바람이 닿지 않았다고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느긋한 성격의 자그레브의 사람들은 야외에서 음식을 나눠먹으며 친구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한다. 남부지방에서 볼 수 있는 특유의 여유로운 성격 때문에 심지어 겨울에도 카페와

레스토랑의 테라스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다. 도시의 거리와 광장에서 즐기는 여유를 막을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없는 듯 하다.

중부유럽과 지중해 연안의 퓨전 라이프스타일의 도시, 자그레브는 모든 것이 가까이에 있다. 에너지가 넘치고, 평온하며 아늑한 장소만을 이어 붙여놓은 듯한 자그레브에서는 이 모든 느낌을 한번에 경험할 수 있다. 자그레브는 단 한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오히려 이것이 자그레브를 특별한 단 하나의 도시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자그레브 지명의 유래

전설에 따르면, 오랜 옛날 자그레브 지역 전체가 극심한 가뭄으로 많은 사람과 가족이 목말라 했다. 이를 안타깝게 본 크로아티아의 한 장군이 그의 검을 마른 땅에 대자 맑은 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그의 군인을 불러 '자그레비테! (Zagrabi-te!, 물을 퍼올려라!)'하고 명하였다. 그리고 그 근처에 서있던 한 소녀, 만다(Manda)에게 „어여쁜 만다여, 나에게 물을 떠다오“하고 말했다. 소녀의 이름을 딴 이 샘물, 만두세바츠(Manduševac)는 지금도 반엘라치치 광장에 있으며, „물을 떠다“라는 크로아티아 어에서 지금의 자그레브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전해진다.



반 요시프 엘라치치
(BAN JOSIP JELAČIĆ)
19세기 크로아티아의 영웅, 총독 요시프 엘라치치는 농노 제도를 폐지하고 최초로 의회선거를 체계화 하였다. 그의 동상은 자그레브의 메인 광장 중앙에 자리잡고 있다.



유명한 자그레브 벨베데레 (ILIČKI NEBODER)

자그레브에서 가장 긴 거리인 일리차(Ilica) 거리와 반 엘라치치 광장(Ban Jelačić Square)이 만나는 곳에는 1959년에 지어진 높은 건물이 하나 있다. 일리차의 마천루, 혹은 광장의 마천루라 불리는 이 건물은 건축가 요시프 히틸(Josip Hiti), 슬로보단 요비치치(Slobodan Jovicic) 그리고 이반 줄레비치(Ivan Zuljevic)에 의해 지어진 크로아티아 최초의 상업고층건물이자 이 지역 유럽 최초의 유리 외관을 가진 건물이다. 오늘날 이 건물은 주상 복합건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곳의 최상층인 16층의 전망대에서는 자그레브의 모습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다.

반엘라치치 광장의 어제와 오늘

셀 수 없이 많은 역사의 장과 기억이 이 광장과 함께했다. 광장에서 가장 오래된 부분인 하르미차(Harmica)는 18세기에 세금을 걷는 곳이었지만, 드넓은 오늘날의 반엘라치치 광장은 반 요시프 엘라치치(Ban Josip Jelačić)의 동상(Antun Dominik Fernkorn의 작품)이 위풍당당한, 자그레브 시민의 가장 좋아하는 약속장소가 되었다. 1974년에서 1990년까지, 헝가리에 대한 저항을 상징하며 광장의 북쪽을 향해있던 엘라치치 동상이 철거되고 '공화국 광장'으로 이름이 바뀌기도 했지만, 오늘날 엘라치치 동상은 자그레브가 확장한 남쪽을 바라보며 재설치 되었고, 애칭 엘라치치 광장으로 다시 불리게 되었다.

자그레브에 대해 재미난 사실과 수치

동경 16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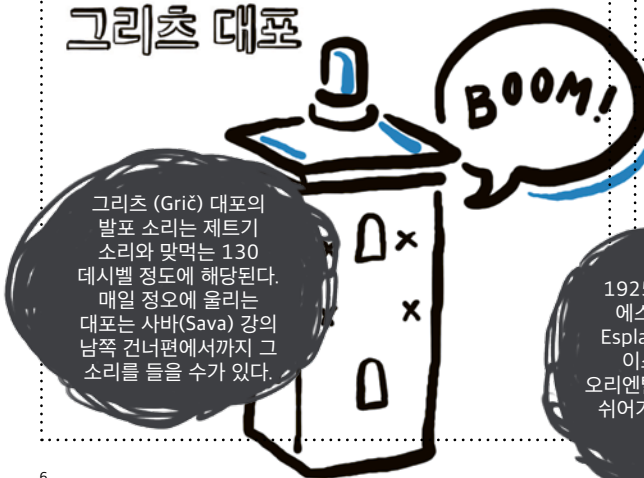
자그레브는 동경 16도의 자오선이 지나가는 곳에 있다. 이를 알려주는 명판이 부코바르스카 (Vukovarska) 와 드르지체바 (Držićeva) 거리가 만나는 곳에 있다.

가장 높은 건축물



자그레브 대성당은 77m의 길이와 46m보다 약간 더 넓은 폭을 가진 건물이다. 이 성당의 두 탑은 자그레브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로 108m의 높이를 자랑한다.

그리츠 대포



그리츠 (Grič) 대포의 발포 소리는 제트기 소리와 맞먹는 130 데시벨 정도에 해당된다. 매일 정오에 울리는 대포는 사바(Sava) 강의 남쪽 건너편에서까지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

호텔 에스플라나데

1925년에 지어진 호텔 에스플라나데(Hotel Esplanade)는 파리에서 이스탄불로 향하던 오리엔탈특급열차의 승객이 쉬어가던 호화 숙소였다.

ORIENT
EXPRESS

자그레브 박물관



자그레브 박물관은 360만여 점이 넘는 전시물을 보유하고 있다.

크로아티아 총 인구 수에 따른 자그레브 인구 비율

2011년에 진행된 인구조사에 따르면, 79만명의 크로아티아 국민이 자그레브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 비율이 크로아티아 총 인구 대비 18.5%에 해당한다.

18.5%

가스등

가스등은 1863년 자그레브에 처음 소개 되어 20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 오늘날까지도 사용되고 있다. 저녁이 되면 점등인이 거리를 돌며 가스등을 밝히고 아침이 되면 다시 직접 소등한다. 이 전통을 지키고 있는 도시는 자그레브를 포함해 유럽에는 단 세 곳밖에 없다.



카페와 식당



자그레브에는 4,500여 곳이 넘는 카페와 식당이 있다. 이는 카페 점포 수당 주민 175명에 해당한다.

자그레브 퍼니쿨러 자그레브의 퍼니쿨러는 세계에서 가장 짧은 대중교통 강삭철도(鋼索鐵道)로, 64초의 운행시간 동안 66미터의 거리를 이동한다.



세계 밑에서 만나! 자그레브 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약속장소는 광장의 "시계탑 아래"이다. 한 때, 자그레브의 모든 시계는 6대를 이어온 레바로비치 (Lebarović) 시계점에서 만들어졌다. 이후, 오스트리아에서 들어온 최초의 시계탑이 설치되었고, 이후 국내에서도 시계탑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지만, 그 디자인은 비엔나의 시계탑과 비슷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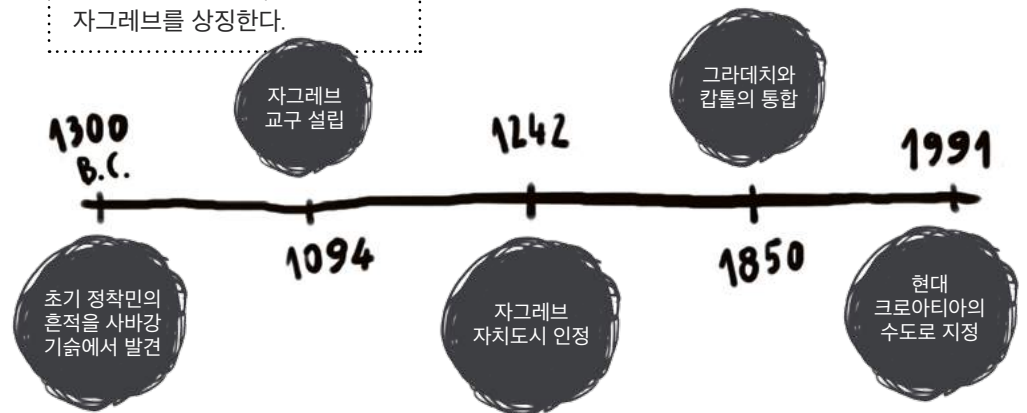
시간여행 과거의 자그레브 이야기

더 알아보기



자그레브는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이었지만, 최초로 문서상에 그 이름이 나타나게 된 것은 1094년부터였다. 이 해에는 자그레브 교구가 설립이 되고, 자그레브 대성당의 토대가 만들어졌다. 당시 자그레브에는 오늘날 트칼치체바(Tkalčićeva) 거리가 된 하천을 기준으로 언덕 쪽의 그라데치(Gradec, 지금의 어퍼타운) 그리고 캅톨(Kaptol)의 두 구역로 나누어져 있었다.

건축가 프리드리히 폰 슈미트(Friedrich von Schmidt)의 지휘 아래 이뤄진 대대적인 보수공사 기간(1876-1882)을 지나면서 성마크 성당(crkva sv. Marka)의 지붕은 아름다운 무늬의 타일로 장식되었다. 이 지붕에는 두 개의 문장(紋章)이 있는데, 왼쪽은 크로아티아, 슬라보니아, 그리고 달마티아의 세 왕국을 나타내고, 오른쪽은 자그레브를 상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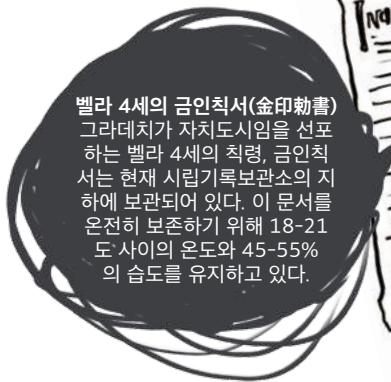
그라데치와 캡틀

1242년 헝가리와 크로아티아의 왕 벨라 4세는 그라데치를 독립적인 시장선출권을 포함한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수여하며 자그레브를 하나의 자치도시로 인정하였다. 그 대신, 그라데치는 성벽과 탑으로 도시를 요새화 할 것을 약속한다. 13세기에 그라데치에는 여러 개의 성문이 설치되었고, 그 중에서 현재까지 남아있는 성문은 스톤게이트가 유일하다. 처음부터 이 광장은 성마크 성당으로 유명했는데, 성당이 처음 지어졌을 때는 지금보다 그 규모가 작았다. 오토만의 영토확장이 절정에 이르렀던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 초 무렵, 자그레브는 오토만 침입의 방어선 혹은 저지선으로서 중요한 전략적 역할을 했다. 이때 방어를 위한 성벽과 탑이 캡틀 주위에 만들어졌고, 이 중 대부분은 현재 까지도 그 형태가 남아 있다. 바로크 시대에는 나무로 만든 집이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 호화로운 저택이 들어섰다. 곧이어 성당과 수도원도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 후 중요한 상업지구로 성장한 자그레브의 매력에 많은 합스부르크 제국의 사람들이 이주하여 정착하면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이 때 새로운 학교와 병원 등이 문을 열었고, 자그레브는 크로아티아의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그라데치와 캡틀이 1850년 통합되면서 도시의 성장세도 더욱 뚜렷해졌다. 자그레브로 이어지는 철도가 1862년 처음 개통되고, 1년 후 도시가스 공급, 1878년에는 상수도시설까지 갖추어지면서 도시기반이 빠르게 구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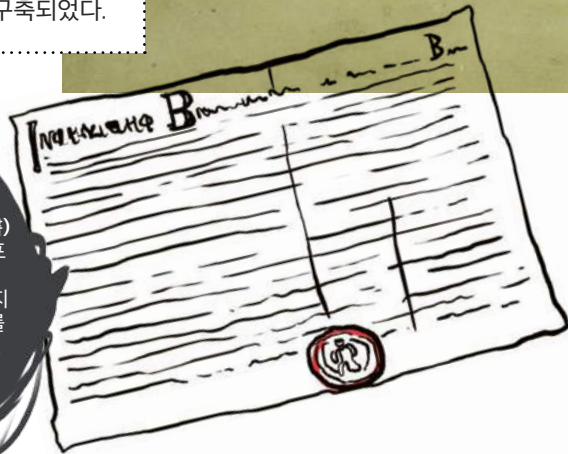


Circonfrenza della città di Zagabria l'anno 1597. con li franchi.

Circonfrenza della fortessa della Giama l'anno 1567.



벨라 4세의 금인칙서(金印勅書)
그라데치가 자치도시임을 선포하는 벨라 4세의 칙령, 금인칙서는 현재 시립기록보관소의 지하에 보관되어 있다. 이 문서를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 18-21도 사이의 온도와 45-55%의 습도를 유지하고 있다.



1880년, 자그레브는 대지진의 피해로 직격탄을 맞게 되었는데, 이 때 자그레브 대성당을 포함한 주요 역사적 건물들이 크게 파손되었다. 이 엄청난 대재앙의 결과로 자그레브는 이전에는 없었던 급격한 현대화를 맞이했다. 신중한 도시계획 아래 새로운 랜드마크와 공공건물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도시 또한 사방으로 확장되면서 19세기에는 인구가 10배 가깝게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1917년에서 1925년 사이, 대학과 전문학교가 설립되었고, 1926년에는 해당 유럽지역에서 최초로 라디오 방송국이 전파를 송출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그레브는 사바 강 이남으로 더욱 확장하여 산업지구를 형성하면서 더 많은 인구가 밀집하였다. 1991년 크로아티아가 독립을 선언하면서, 자그레브는 크로아티아의 수도이자 이 나라에서 가장 큰 도시가 되었다.

자그레브는 현대적인 대도시로 발전함과 동시에 주요한 역사적 유적을 온전히 보존하고 있는 몇 되지 않는 도시 중 하나다. 한 때 완벽히 요새화 되었던 그라데치 혹은 그리츠 (Grič)는 현대도시로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원래의 모습과 매력이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자그레브 역사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어퍼타운의 전체적인 형태와 도로의 배치는 13세기 이후 거의 변경되지 않았다. 도시의 남쪽 입구를 방어했던 로트르슈차크(Lotrščak) 탑과 적을 피해 성직자들이 은신했던 사제의 탑(Popov toranj)은 중세시대의 모습을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사제의 탑은 자그레브 천문대 역할을 하기도 했다.



성마르 광장 (Markov trg)은 어퍼타운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한때 총독이 거주하였던 반스키 드보리 (Banski dvori) 혹은 총독궁은 오늘날 자그레브 정부를 상징하는 건물이 되었고, 광장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건물은 흐르바츠키 사보르 (Hrvatski sabor)라 불리는 크로아티아 의회가 자리잡고 있다. 주변의 다른 공공건물로는 자그레브 시의회, 그리스 정교회 성당, 나이브아트 크로아티아 미술관, 브로크릴레이션십 박물관과 성캐서린 성당(crkva sv. Katarine)을 중심으로 한데 모인 예수회의 건물들이 있다.



자그레브의 날

(ZAGREB CITY DAY)

1731년 5월 30일, 자그레브의 주요 성문 중의 하나였던 스톤게이트까지 모두 소실되었던 대화재가 발생했다. 하루가 걸려 불을 끄고난 뒤, 스톤게이트의 잿더미에서 성모마리아의 그림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채 원래 모습 그대로 발견되었다. 이후 5월31일은 자그레브의 날로 지정되었고, 스톤게이트의 성모마리아는 자그레브의 수호성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ZAGREB TOP 10



1

성마크 광장 (MARKOV TRG)

성마크 광장에는 크로아티아 정부청사, 의회, 헌법재판소 등 주요 정부기관이 모여있다. 하지만 이 우아하고 기품있는 건물들은 광장의 주인공 자리를 13세기 중기부터 그 아름다움을 뽐내온 성마크 성당에게 내어주었다. 더 알아보기 pg.9



2

레누치의 말밭급

(LENUCIJEVA POTKOVA)

19세기, 광장과 공원을 이어 만들어진 레누치의 말밭급을 따라 많은 과학-문화 기관이 위치하고 있어, 자그레브 도시 계획의 정점을 보여준다. 더 알아보기 pg.22



3

돌라츠 시장 (DOLAC)

자그레브에서 가장 크고, 가장 매력적인 야외시장인 돌라츠에서는 크로아티아 각 지역에서 생산된 형형색색의 현지 과일과 채소 등의 질 좋은 농수산물 판매된다. 더 알아보기 pg.57



4

미로고이 묘지 (MIROGO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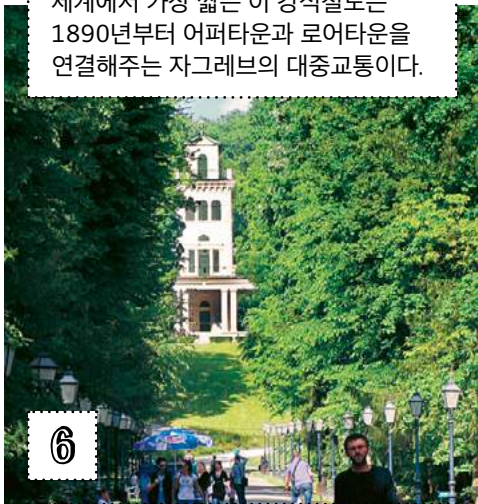
그저 묘지라기에는 너무 아름다운 미로고이는 차라리 도심에서 만날 수 있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야외조각공원에 더 가깝다. 더 알아보기 pg.21



5

퍼니쿨러 (USPINJAČ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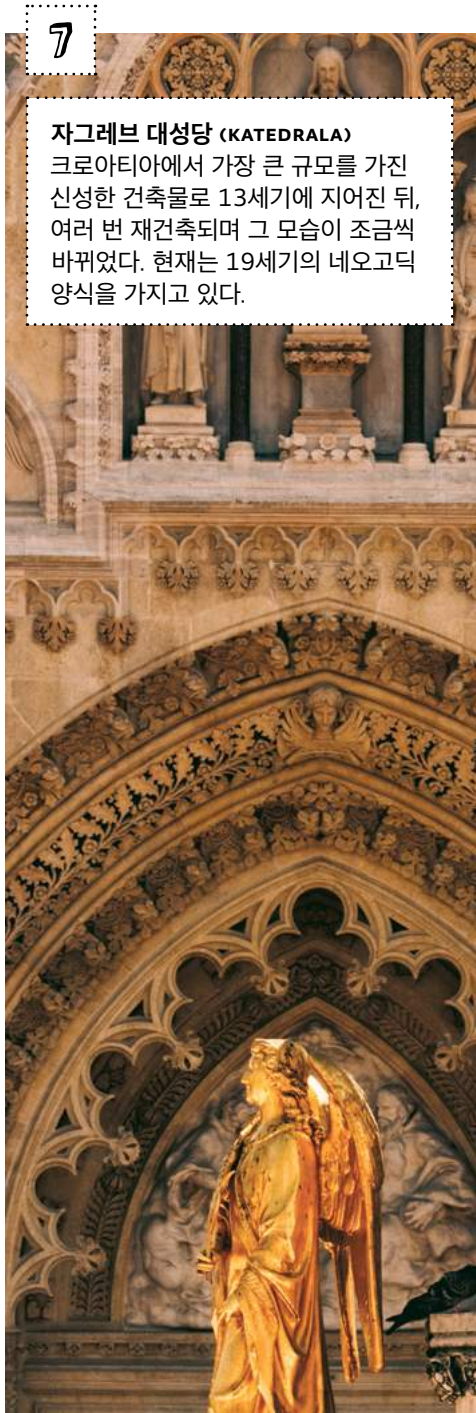
세계에서 가장 짧은 이 강석철도는 1890년부터 어퍼타운과 로어타운을 연결해주는 자그레브의 대중교통이다.



6

막시미르 공원 (MAKSIMIR)

1794년에 개장된 막시미르 공원은 자그레브에서 가장 오래되고, 주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공원이다. 영국식 조경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이 공원은 여러 개의 호수, 파빌리온, 그리고 자그레브 동물원을 보유하고 있다. 더 알아보기 pg.20



7

자그레브 대성당 (KATEDRALA)

크로아티아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진 신성한 건축물로 13세기에 지어진 뒤, 여러 번 재건축되며 그 모습이 조금씩 바뀌었다. 현재는 19세기의 네오고딕 양식을 가지고 있다.



8

슈피차 (ŠPICA)

반엘라치치 광장에서 페타르 프레라도비치 광장 (Trg Petra Preradovića) 혹은 꽃의 광장까지 이어지는 거리는 '슈피차(špica)'라 불리는 자그레브의 유명한 카페거리이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카페의 야외테이블 때문에 마치 야외에 있는 거대한 거실 같은 느낌을 준다. 이곳에서는 자그레브의 전형적인 카페 문화를 접할 수가 있다.



9

로트르슈차크 타워 (KULA LOTRŠČAK)

자그레브에 남아 있는 가장 잘 보존된 방어시설, 로트르슈차크 타워의 꼭대기에는 매일 정오 발사되는 그리츠 대포가 있다.



10

메드베드니차 (MEDVEDNICA)

자그레브의 가장 북부지역은 메드베드니차 산 (Medvednica)의 발 아래에 자리잡고 있다. 자연 그 자체가 공원인 메드베드니차 산은 자그레브 시민이 가장 좋아하는 당일치기 여행지이다. 더 알아보기 pg.19

초록빛 자그레브 자연스럽게 만나는 자그레브의 좋은 점

더 알아보기



자그레브는 공원을 산책하기에 좋은 맑은 날이 많다. 휴식이 필요하거나 활동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혹은 그저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자그레브의 공원은 최고의 장소다. 여러 공원에는 야외예술작품이 전시되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고, 공원 그 자체가 예술이 되기도 한다. 무엇보다 삶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항상 '공짜'라는 사실.

메드베드그라드 (MEDVEDGRAD)
메드베드니차 산의 남쪽 중턱에는 아름다운 중세의 메드베드그라드 성(medvedgradski dvorac)이 잘 보존되어 있다. 이 성은 1242년 타타르족의 침략 이후에 건설되었는데, 과거 중요한 전략지였던 이곳은 오늘날 자그레브가 전체가 내려다보이는 장관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되었다. 메드베드그라드의 요새 내부에는 고딕양식의 성필립과 성제임스 예배당, 크로아티아 독립전쟁에서 희생된 군인들을 기리는 기념비(Oltar domovine)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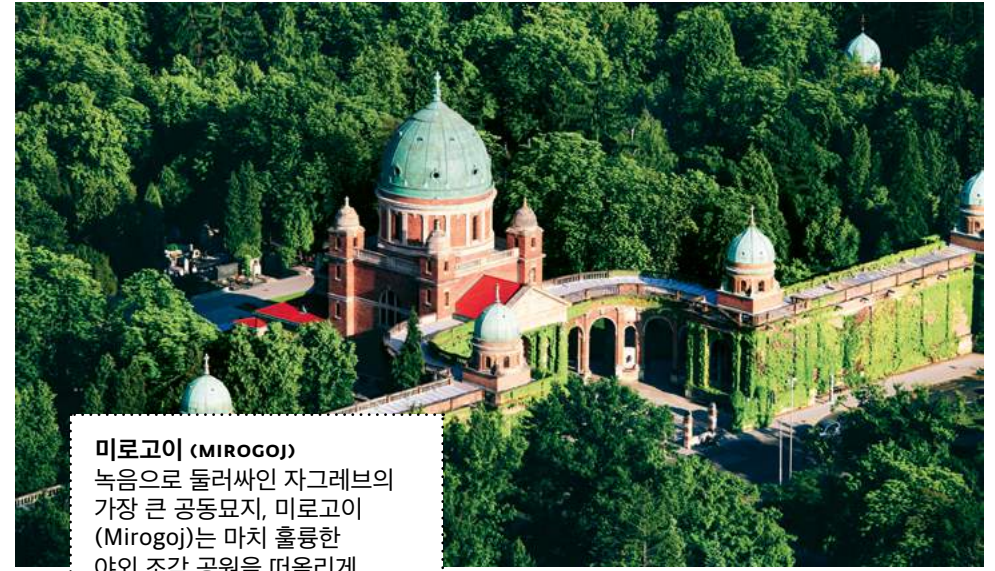
메드베드니차 (MEDVEDNICA)
자그레브 어디에서나 올려다보이는 메드베드니차 산은 북쪽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뿐만 아니라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적으로부터도 항상 자그레브를 지켜주었다. 오늘날에는 8개의 산림보호지역을 보유하여 그야말로 산 그 자체가 자연공원이 되었다. 알맞은 고도, 많은 샘과 시내 덕분에 메드베드니차에는 이례적으로 다양한 식물군과 동물군을 살고 있다. 풍부한 지질학적 유산도 가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베테르니차 (Veternica) 동굴로 크로아티아에서 가장 독특한 고생물학적 장소이기도 하다. 표식으로 알아볼 수 있는 등산로가 있고, 중간중간 쉬어갈 수 있는 매력적인 오두막쉼터도 있다. 활기찬 분위기의 쉼터에서는 훌륭한 크로아티아 가정식을 맛볼 수 있다.



막시미르 (MAKSIMIR)

나무가 울창한 영국식 조경의 이 공원은 바쁘게 흘러가는 도시를 벗어나고 싶을 때 딱 맞는 장소이다. 이 공원의 설립자, 주교 막시밀리안 브르호베치 (biskup Maksimilijan Vrhovec)의 이름을 딴 막시미르 (Maksimir) 공원은 1794년 개장 당시 남동부 유럽지역 최초의 시민공원이었다. 수풀림이 우거진 막시미르에는 5개의 호수와 시내가 있어 휴식과 재충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야말로 완벽한 장소라 할 수 있다. 막시미르의 하이라이트는 자그레브 동물원, 막시미르 벨베데레 (maksimirski vidikovac) 그리고 메아리의 파빌리온이 있다.

막시미르는 316헥타르에 걸친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 크기는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비슷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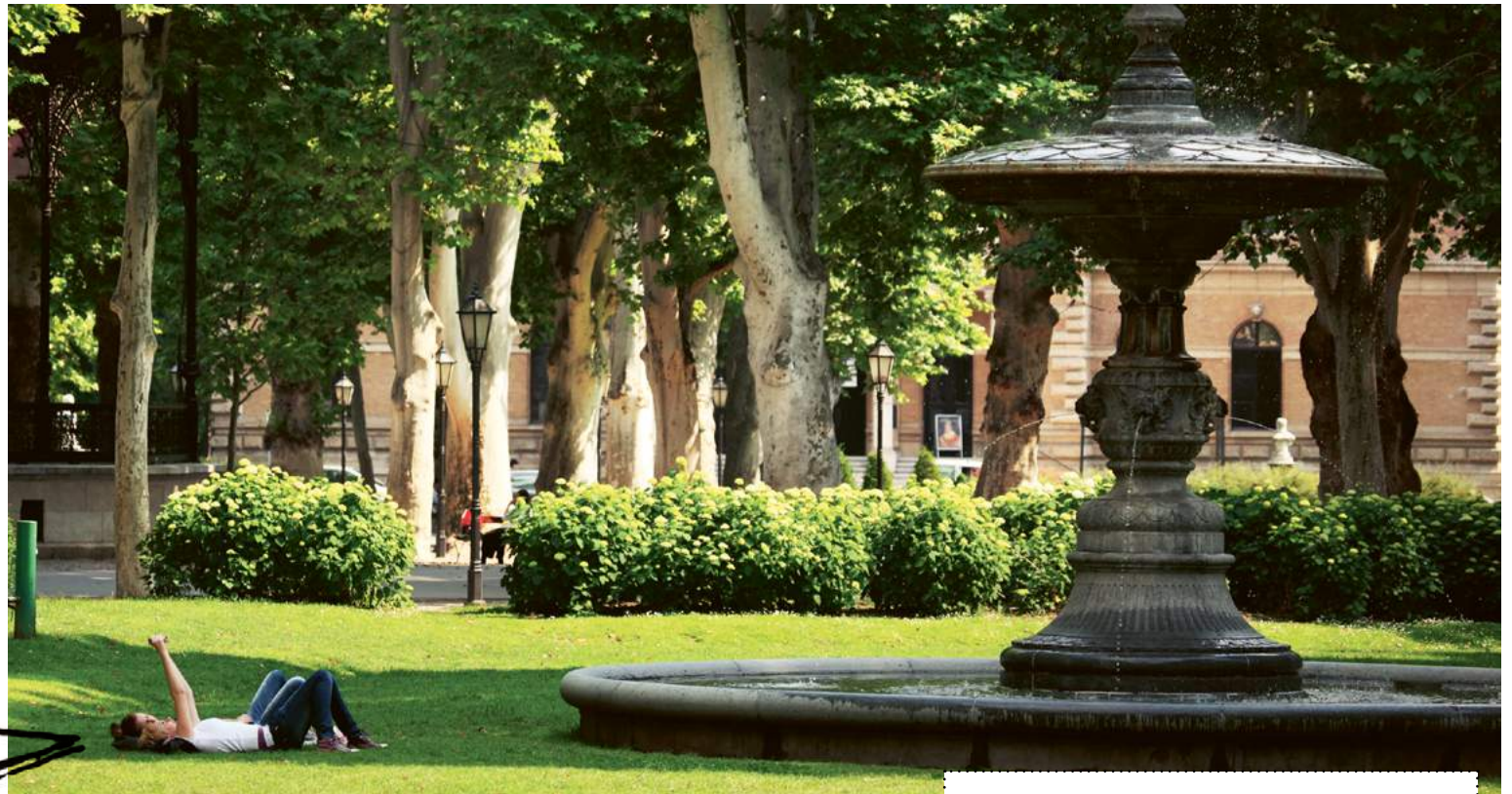
미로고이 (MIROGOJ)

녹음으로 둘러싸인 자그레브의 가장 큰 공동묘지, 미로고이 (Mirogoj)는 마치 훌륭한 야외 조각 공원을 떠올리게 한다. 헤르만 볼(Hermann Bollé)이 설계한 500미터 길이의 웅장한 네오르네상스의 회랑은 크로아티아의 실증주의 건축양식의 대표작이다.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묘지이지만 그에 대한 차별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 이곳은 종교에 대한 자그레브의 포용력을 보여주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자연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묘지의 조각상, 갤러리, 파빌리온은 미로고이를 방문하는 이들에게 독특한 분위기의 산책로를 제공한다.





기상기록대
(METEOROLOŠKI SAT)
 1884년 즈린예바츠 (Zrinjevac) 공원의 북쪽에 기상기록대가 설치되었다. 빈티지한 기상기록대는 매주 월요일에 사람이 직접 기록을 태엽을 감아 작동한다. 습도, 기압, 온도가 기록되는 테이프도 매주 사람이 직접 교체한다.



레누치의 말발굽
(LENUCIJEVA POTKOVA)
 19세기 도시계획전문가, 밀란 레누치(Milan Lenuci)의 이름을 딴 레누치의 말발굽은 말발굽 모양으로 이어진 광장과 공원을 말한다. 자그레브 시민은 초록 말발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식물원을 포함한 7개의 공원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이다. 문화시설, 정부기관, 법원, 박물관, 갤러리, 호텔과 자그레브 중앙기차역과 같은 격식있는 건물이 레누치의 말발굽을 둘러싸고 있다. 특별히 날씨가 좋은 날이면 광장과 공원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햇살을 받은 잔디 위에서 느긋하고 평화로운 시간을 즐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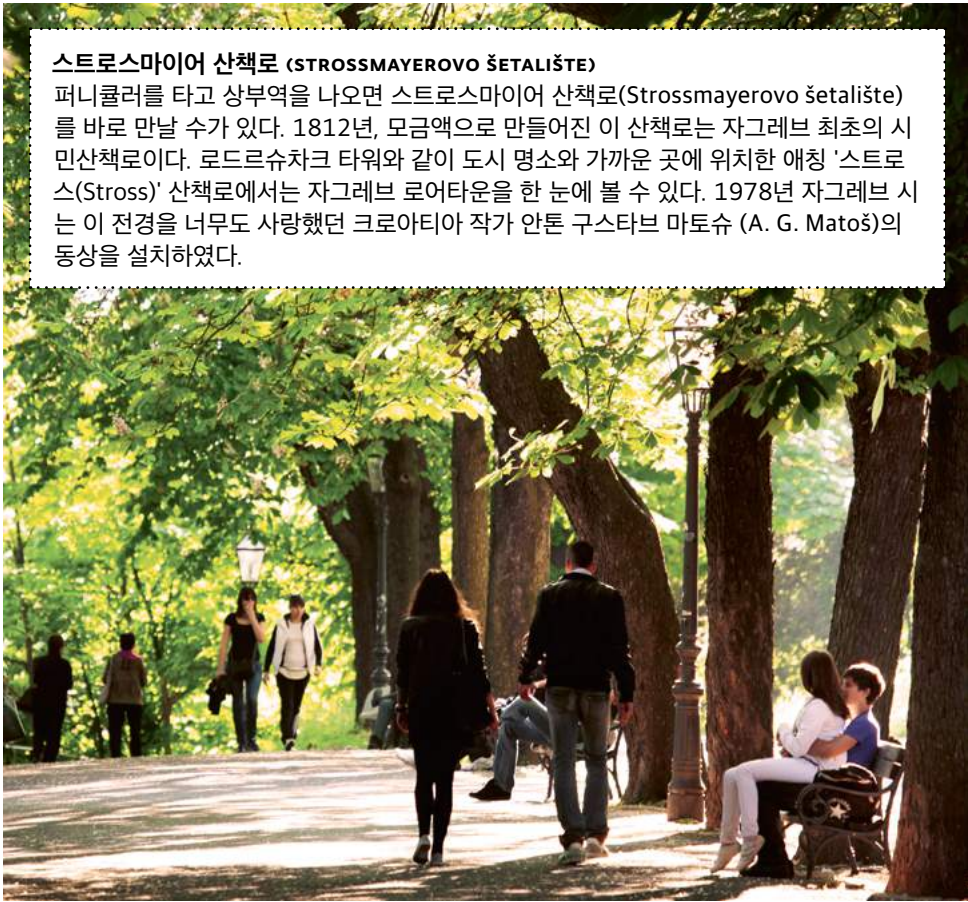
식물원 (BOTANIČKI VRT)
 레누치의 말발굽의 아래쪽에는 자그레브 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소속의 식물원이 있다. 이 식물원은 레누치의 말발굽에 속해있는 공원 중에 유일하게 입장시간이 정해져 있다. 영국식 조경의 이 식물원은 1892년에 처음으로 나무가 심어졌고, 대칭적으로 만들어진 화단은 이 식물원의 과거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게 한다.



식물생물다양성
 식물원은 5000종이 넘는 식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300종은 보호종으로 지정되어 있다.

스트로스마이어 산책로 (STROSSMAYEROVO ŠETALIŠTE)

퍼니쿨러를 타고 상부역을 나오면 스트로스마이어 산책로(Strossmayerovo šetalište)를 바로 만날 수가 있다. 1812년, 모퉁액으로 만들어진 이 산책로는 자그레브 최초의 시민산책로이다. 로트르슈차크 타워와 같이 도시 명소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애칭 '스트로스(Stross)' 산책로에서는 자그레브 로어타운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1978년 자그레브 시는 이 전경을 너무도 사랑했던 크로아티아 작가 안톤 구스타브 마토슈 (A. G. Matoš)의 동상을 설치하였다.



안톤 구스타브 마토슈 (ANTUN GUSTAV MATOŠ)
크로아티아 출신의 대작가, 마토슈의 알루미늄 동상은 1972년 조각가 이반 코자리차(Ivan Kožarić)에 의해 제작되었다. 그야말로 진정한 자그레브 애호가에게 딱 걸맞은 현사이다.

로맨틱 자그레브

자그레브를 방문한 커플이라면 어퍼타운에 사랑의 자물쇠를 채워두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 연인의 벤치에 앉아보거나 로트르슈차크 타워 아래서 나누는 키스는 사랑을 불태우기에 충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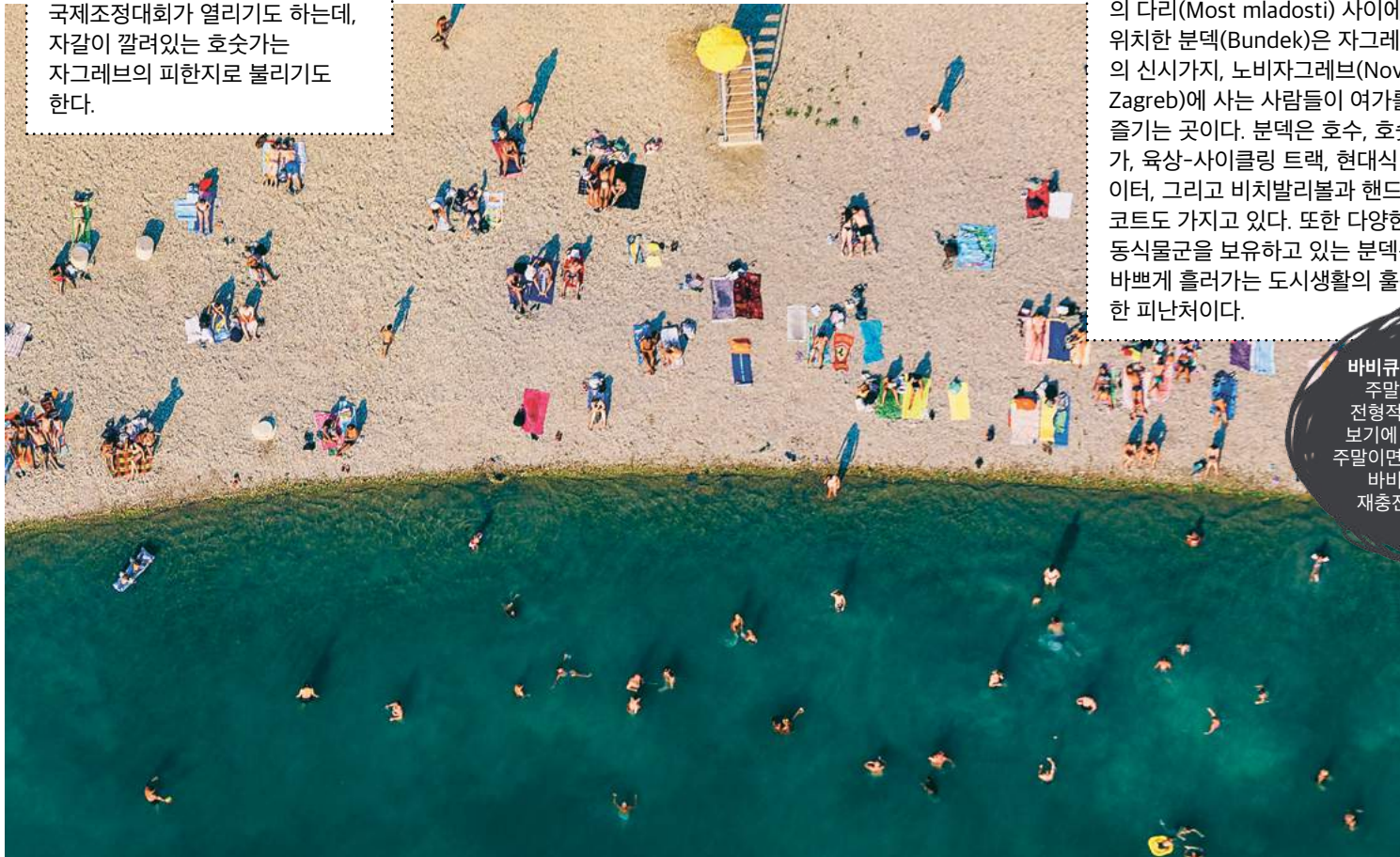
리브냐크 (RIBNJAK)

자그레브 대성당 뒷편의 낮은 녹지대는 한 때 성당 주교 소유의 연못이 있었다. 1892년, 영국식 조경으로 지어진 이 정원은 이국적인 관목과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다. 도시의 정중앙에 위치한 리비냐크(Ribnjak)는 여행에 지친 다리를 쉬어가기에 안성맞춤인 장소이다.



야룬 (JARUN)

자그레브 서부에서 가장 큰 공원인 야룬(Jarun)은 시민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도심 속 휴양지이다. 야룬은 본래 사바 강의 제방 건설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하는 곳이었는데, 1987년 자그레브에서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개최되면서 육상-사이클 트랙, 운동기구, 놀이시설, 인공호수가 있는 스포츠 단지로 개발되었다. 호수 주변을 둘러싼 카페와 식당에서 여유를 즐기며 도시의 소란스러움을 잠시나마 잊어갈 수 있다. 호수에서는 국제조정대회가 열리기도 하는데, 자갈이 깔려있는 호숫가는 자그레브의 피한지로 불리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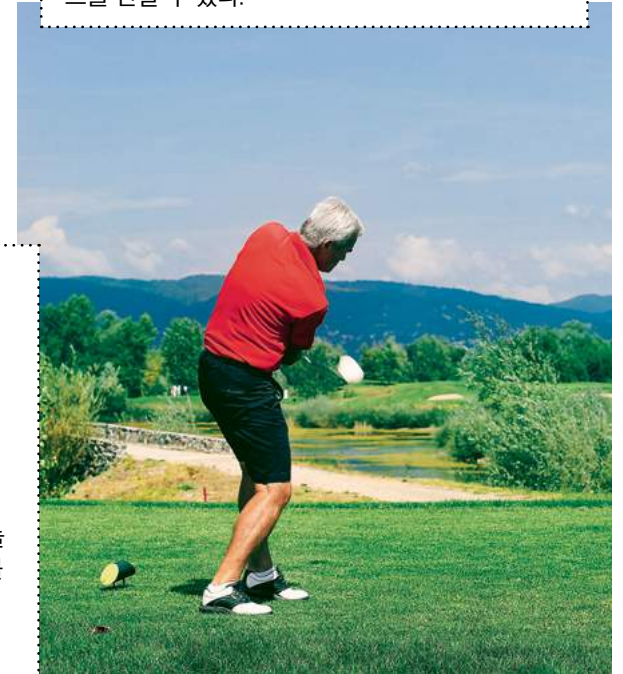


분덱 (BUNDEK)

사바 강을 지나는 두개의 다리, 자유의 다리(Most slobode)와 젊음의 다리(Most mladosti) 사이에 위치한 분덱(Bundek)은 자그레브의 신시가지, 노비자그레브(Novi Zagreb)에 사는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는 곳이다. 분덱은 호수, 호숫가, 육상-사이클링 트랙, 현대식 놀이터, 그리고 비치발리볼과 핸드볼 코트도 가지고 있다. 또한 다양한 동식물군을 보유하고 있는 분덱은 바쁘게 흘러가는 도시생활의 훌륭한 피난처이다.

골프

녹지대를 자랑하는 야룬은 골프코스로도 유명하다. 따뜻한 봄 여름, 고급스포츠가 아닌 친구와 가족들이 다 함께 느긋하게 즐길 수 있는 운동으로서의 골프를 만날 수 있다.



바비큐를 즐기는 좋은 주말 주말은 그 도시가 가진 전형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보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다. 주말이면 자그레브의 시민들은 바비큐와 함께 여가와 재충전의 시간을 즐긴다.



숨겨진 자그레브 여유로이 열정적인 도시



브리탄스키 광장의 시장
 자그레브는 시장과 축제에 관해 긴 역사가 있지만, 옛날 스타일의 동네시장은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브리탄스키 광장 혹은 브리티쉬 광장의 시장은 오랜세월의 시험을 견뎌왔다. 이곳에서 만날 수 있는 유명한 도심의 앤틱마켓은 초보자, 전문가를 막론하고 모든 수집가와 현지만의 분위기를 찾고 있는 여행자에게 큰 기쁨을 주는 곳이다.

더 알아보기



거리를 보다 매력적이게, 광장을 더욱 특별하게, 또는 공원을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만드는 세세한 요소들과 우연히 마주치게 되면 우리는 이미 그 장소를 사랑하게 된다. 자그레브를 특별하게 만드는 이런 작은 요소를 일일이 나열하고 있는 책은 그 어느 곳에도 없다. 모두가 자기만의 여행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꼭 소개할 필요가 있는 장소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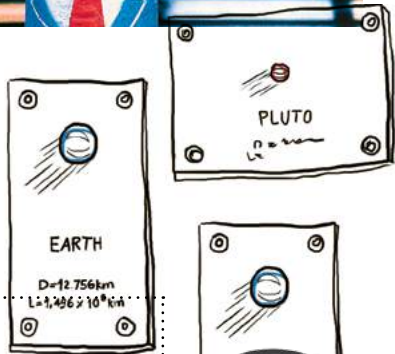
PIMP MY PUMP

거리 예술가들이 시작한 'Pimp my pump' 프로젝트는 옛 자그레브의 한 아이템을 예술작품으로 탈바꿈시키는 프로젝트다. 도시 여기저기에 많이 흩어져 있지만, 거의 잊혀졌던 양수기는 이제 창의적이고 다채로운 디자인으로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갖게 되었다.



자그레브의 태양계 (SUNČEV SUSTAV)

1972년 이반 코자리치에 의해 구체의 조각품, '땅 위의 태양 (Prizemljeno sunce)'이 먼저 만들어졌다. 이후 2004년, 예술가 다보르 프레이시(Davor Preis)가 "땅 위의 태양과 아홉 개의 시각(Prizemljeno sunce i Devet pogleda)"이라는 제목을 붙인 작품을 더하면서 다른 수준의 작품으로 발전시켰다. 이 작품은 태양계의 다른 행성을 코자리치의 태양과 동일한 축적과 거리에 맞춰 추가로 설치하여 자그레브만의 태양계를 만들었다.



명왕성 (PLUTON)

자그레브의 태양계에서 가장 멀리 있는 행성은 명왕성이다. 자그레브 서쪽의 교외지역, 알레야 블로그네(Aleja Bologne)에 설치된 명왕성은 땅 위의 태양과 정확히 7,658.6m 떨어져있다.

빅토리 호의 체인 (NELSONOV BRODSKI LANAC)
 오파티치카(Opatička) 거리와 카메니타(Kamenita) 거리가 만나는 모퉁이에 독특한 유물, 바로 트라팔가 전투로 유명한 벨슨 제독의 군함, HMS 빅토리 호의 체인이 있다. 전해진 바에 의하면 이 체인은 아일랜드 출신 오스트리아 장군, 라발 뉴젠트가 수집한 것인데 그는 군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열정적인 고고학자이며 수집가였다.



자그레브에서 가장 오래된 약국
 1355년 문서에 처음 기록된 '검은 독수리' 약국은 자그레브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약국으로 스톤게이트의 맞은 편, 카메니타 거리의 끝에 위치하고 있다. 셀 수 없이 수많은 약사들이 기나긴 역사동안 이 약국에서 일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약사는 니콜로 알리기에리(Niccolò Alighieri)인데, 그는 '신곡'을 만든 시인, 단테 알리기에리의 증손자이다.



유르예브스카 공동묘지 (JURJEVSKO GROBLJE)
 유르예브스카(Jurjevska) 거리에는 현지인도 잘 모르는 14세기 무연고자의 공동묘지가 있다. 옛날에는 밤나무 옆 공동묘지로 불리기도 했었다. 17세기, 자그레브가 성장하면서, 유명인을 포함한 많은 어퍼타운의 시민들도 이곳에 묻혔다. 1896년, 결국 이 묘지는 공식적으로 폐쇄되었으나, 여전히 으스스한 분위기를 풍긴다.



가스등

어퍼타운의 로맨틱한 분위기를 한층 북돋는 요소 중의 하나로 주철로 만든 기둥에 설치된 가스등이 있다. 처음 설치된 후, 150여년 동안 자그레브를 밝히고 있는 가스등은 여전히 자그레브 시의 공무원에 의해 매일 직접 점등되는데, 이러한 방식은 어퍼타운 특유의 역사적인 분위기를 더욱 증폭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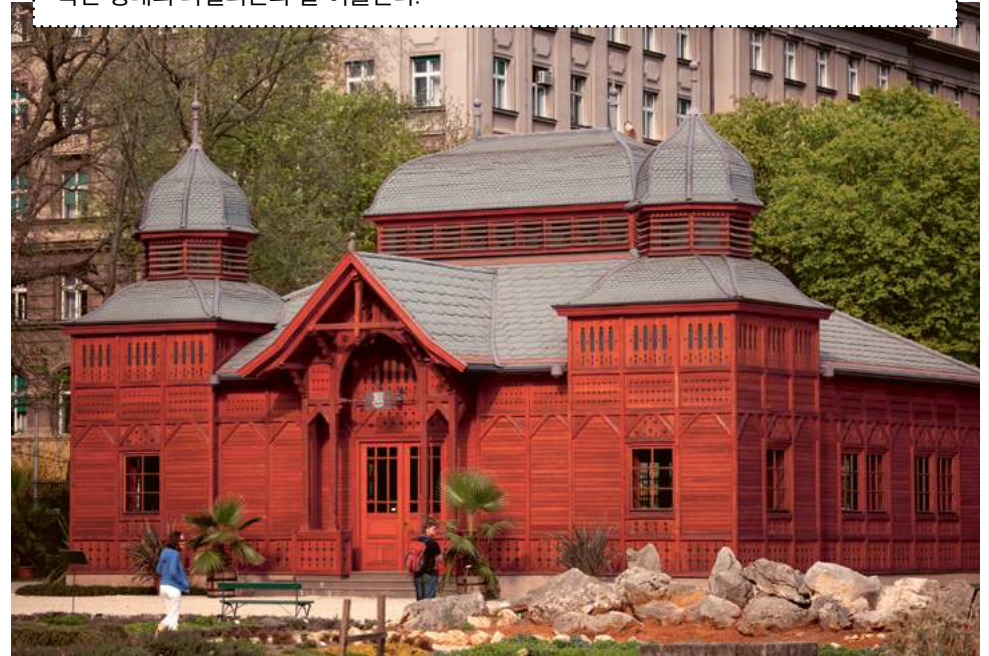


자그레브 비밀의 정원

특히 어퍼타운에 있는 저택의 안뜰은 자그레브를 대표하는 특징 중 하나이다. 다양한 예술작품과 건축물, 그리고 원예장식으로 각각의 정원이 서로 다른 분위기를 낸다. 특유의 고요함을 찾아 이곳에 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곳에 숨겨진 역사의 수수께끼를 찾아오는 사람도 있다.

식물원의 파빌리온

1891년 식물원이 정식으로 개장하기 전에 이미 건설된 파빌리온은 식물원의 가장 큰 볼거리 중의 하나였다. 원래는 2회째 경제박람회에서 오스트리아-헝가리 왕족의 파빌리온으로 사양되었으나, 이후 자그레브 식물원에 기증되었다. 파빌리온의 배경을 장식하고 있는 푸른 나무와 눈길을 사로잡는 화단이 붉은색의 목재 현관과 초록색의 지붕을 가진 독특한 형태의 파빌리온과 잘 어울린다.



자그레브의 터널

자그레브의 지하에는 작지 않은 규모의 터널이 얽혀있는데, 이 중에는 메드베드니차 산까지 연결된 것도 있다. 대부분은 현지인들에게도 잘 알려지지 않은 터널인데, 최근 공개된 그리치(Grič) 터널은 자그레브 터널에 얽힌 역사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1943년 제2차 세계대전 공습 대피용으로 지어진 그리치 터널은 메스니츠카(Mesnička) 거리에서 라디체바(Radičeva) 거리까지 이어지며, 일리차(Ilica)와 토미체바(Tomičeva) 거리로 나갈 수 있는 중간 출구가 있다. 지금은 관광지가 되었지만, 1991년에서 1995년까지 이어진 크로아티아 독립전쟁 동안 다시 한번 대피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신 자그레브 Novi Zagre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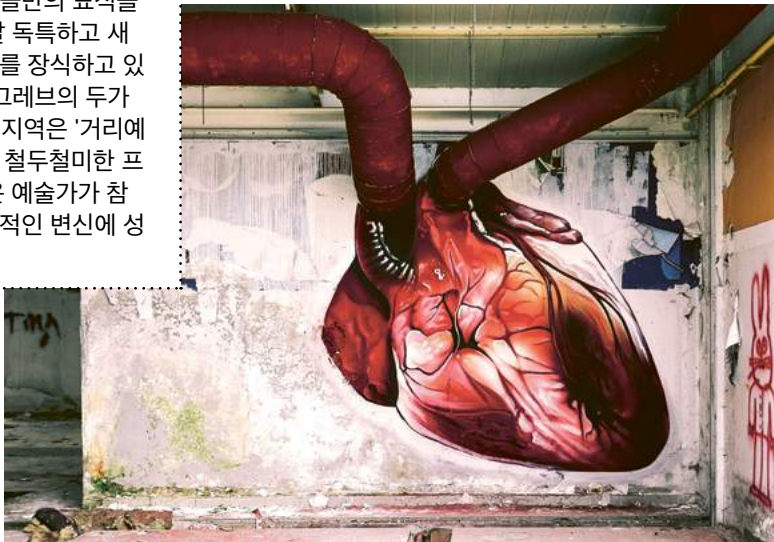
사바철교 — 그린브릿지

(ŽELJEZNIČKI MOST SAVA — ZELENI MOST)

한 눈에 띄는 초록색 구조물은 1939년 지어진 사바 강의 철교이다. 수 십년 전, 누군가 그린 '헨드릭스'라는 낙서가 처음 나타났다. 관리기관에서 이 낙서를 지워도 매번 또 다른 누군가에 의해 전설적인 기타리스트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타났고, 이제는 주민들 사이에서는 철교 이상의 상징성을 갖게 되었다. 최근에는 조명시설이 설치되면서 색다른 매력을 발산 중이다.

거리예술

자그레브의 거리예술계는 최근 몇 년간 그 규모와 다양성의 범위를 계속해서 확장해나가고 있다. 재능있는 많은 지역출신 예술가와 단체는 그들의 표식을 만들고, 거의 매달 독특하고 새로운 벽화로 도시를 장식하고 있다. 특히 노비 자그레브의 두가베(Dugave) 주거지역은 '거리예술 전시관'이라는 철두철미한 프로젝트 아래, 많은 예술가가 참여한 벽화로 시각적인 변신에 성공하였다.



마무티차 (MAMUTICA)

1974년 지어진 크로아티아에서 가장 큰 아파트 마무티차(Mamutica, 매머드)는 아직까지 유럽에서 가장 큰 아파트 중 하나로 남아있다. 약 오천여 명이 살 수 있는 1169세대의 규모로, 실제 이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 넘쳐나는 공원으로 매우 살기에 좋은 곳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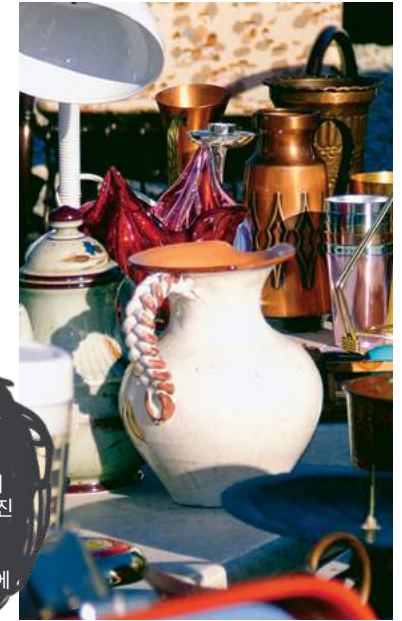
쌍 미끄럼틀

훌륭한 예술작품 외에 자그레브 현대미술관에는 '쌍 미끄럼틀' 이름을 가진 독특한 설치물이 있다. 개념예술작가 카스텐 홀러(Carsten Höller)에 의해 만들어진 이 작품은 실제 미끄럼틀로 이용할 수 있는데, 관람객들은 제일 위층에서 아래층까지 한번에 미끄러져 내려올 수 있다.



흐렐리츠 (아쿠세바츠 벼룩시장) (HRELIĆ)

크고 정신이 없는 이 벼룩시장은 시내와 조금 떨어져 있지만 대중 교통으로 쉽게 갈 수 있다. 주머니에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와 상관 없이, 흐렐리츠는 값은 싸지만 질 좋은 물건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천국과 같은 곳이다. 이 곳에서 사고 파는 품목은 신발, 책, 연장, 기계, 심지어는 자동차까지 그 범위가 엄청나다. 어느 벼룩시장과 마찬가지로 흥정은 필수이다.



자그레브 전시관 (ZAGREBAČKI VELESJAM)

제2차세계대전 이전, 자그레브 사브스카 25번지 (Savska 25)에 지어진 이 전시관은 1956년 사바 강 건너편으로 이전되었고, 곧 이 지역 유럽에서 가장 큰 전시관이 되었다. 이 전시관은 북페어, 디지털 박람회, 비즈니스 엑스포, 생활 박람회 등 오늘날 까지도 다양한 종류와 규모의 전시회가 활발하게 열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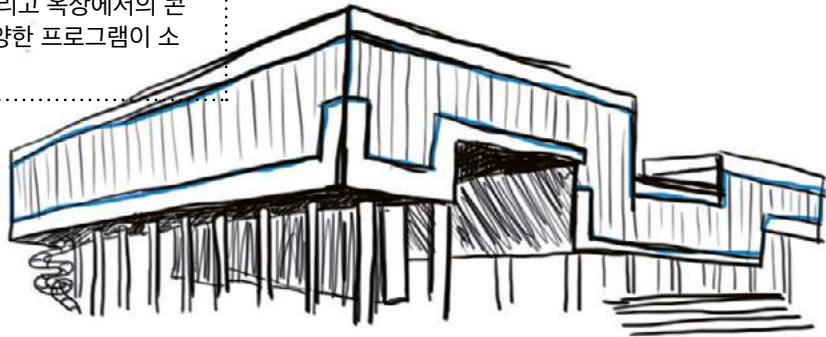
문화와 예술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들



현대미술전시관

(MUZEJ SUVREMENE
UMJETNOSTI)

2009년 개관한 전시관은 1950년대부터 수집된 크로아티아와 그 외 국제적으로 명성있는 예술가의 작품이 12,000여점이 넘게 전시되어 있다. 전시관의 실내외에서는 특별전시회, 행위예술, 공연, 영화상영, 그리고 옥상에서의 콘서트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소개된다.



자그레브의 박물관은 고대 로마에서 그리스 중세시대, 전통예술에서 현대예술, 전문예술에서 나이브아트, 잔혹예술에서 온건예술까지 모든 시대, 각기 다른 양식의 다양한 예술작품을 자랑한다. 여기에 더해 정해진 공식 밖에서 또다른 상상력의 세계를 발전시키고 있는 거리예술까지 모두 포용한다.

더 알아보기





자그레브에 미라가?
이 미라는 미하엘
바리치(Mihael Barić)
가 1848-49년 이집트
방문 중 구입한 것이다.

고고학 박물관

(ARHEOLOŠKI MUZEJ)

자그레브 고고학 박물관을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이유는 박물관이 자그레브에서 가장 예쁜 광장 중 한 곳에 있다는 위치적 이유뿐만 아니라 이곳에 전시되어 있는 희귀하고 특별한 있는 전시품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방문객들에게 가장 인상깊은 전시품은 자그레브 린넨책자로, 고대 에트루리아 문자가 쓰여진 유물 중, 가장 긴 글이 쓰여있는 린넨 천이다. 최근에 다시 전시되고 있는 이집트 미라 또한 이 박물관의 하이라이트이다.

크로아티아 나이브아트 박물관

(HRVATSKI MUZEJ
NAIVNE UMJETNOSTI)

크로아티아의 유명한 나이브아트 화가와 조각가의 작품이 상시 전시되고 있다. 이 박물관에서는 1930년대에서 1980년대 후반까지, 명성있는 흘레비네 학파(Hlebinska škola)를 포함해 외국의 나이브아트 작가의 작품도 감상할 수 있다.



민속박물관

(ETNOGRAFSKI MUZEJ)

크로아티아 전역의 전통의상을 상시 전시하고 있는 민속박물관에서는 크로아티아 출신의 탐험가가 수집한 비유럽국의 민속품도 함께 전시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누구나 쉽게 접하는 매력 넘치는 일상생활에 관한 단기전시회도 열리고 있다.

크로아티아 역사박물관

(HRVATSKI POVIJESNI MUZEJ)

1846년에 설립된 이 박물관은 중세시대부터 오늘날까지 크로아티아의 유산을 기록하고 전시하고 있다.



자그레브 시립박물관 (MUZEJ GRADA ZAGREBA)

1907년에 처음 문을 연 시립박물관은 자그레브 지역의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역사를 서사형식으로 소개하고 있다. 전시회에서 자그레브의 과거, 정치적 사건, 유행했던 문화와 예술 등 다방면의 모습을 보여준다. 시각적으로 돋보이는 방식으로 진열된 전시품은 자그레브의 역사적 풍요로움과 일상을 한눈에 보여준다.

니콜라 테슬라 기술박물관

(TEHNIČKI MUZEJ NIKOLA TESLA)

기술박물관은 과학과 기술에 관심과 호기심이 넘치는 이들이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장소이다. 박물관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실제와 동일하게 만든 니콜라 테슬라의 실험실인데, 이 곳에서는 테슬라의 발명품을 직접 작동시켜볼 수 있다. 또한, 재연된 300미터 길이의 광산에서는 석탄, 철과 비철을 직접 추출해볼 수 있다.



예술공예 박물관

(MUZEJ ZA UMJETNOST I OBRT)

1880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예술공예박물관은 대량생산상품에 밀려 설 곳을 잃어가고 있는 장인과 공예인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곳이다. 크로아티아의 물질문화를 경험하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할 수 있다.





메슈트로비치 아틀리에

(ATELIJER MEŠTROVIĆ)

성마크 성당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유명 조각가, 이반 메슈트로비치(Ivan Meštrović)의 갤러리가 있다. 매력적인 이 공간은 작가가 실제 거주했던 집이자 작업실이었으며, 현재는 대리석, 석재, 목재와 청동으로 만들어진 조각상과 부조, 스케치, 판화 등의 다양한 그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이곳은 풍부하고 다양한 그의 훌륭한 작품과 경력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미마라 박물관 (MUZEJ MIMARA)

예술 수집가 안테와 빌트루데 토피치 미마라 부부(Ante i Wiltrude Topić Mimara)는 고대부터 20세기까지의 주요미술품을 개인적으로 수집, 소장하였다. 이후 미마라 부부가 소장품을 자그레브 시에 기증하면서 이 박물관이 설립되었다.

자그레브 현대미술관

(MODERNA GALERIJA)

자그레브 현대미술관은 750점이 넘는 그림과, 조각상, 메달 및 뉴미디어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19세기부터 운영되고 있는 현대미술관에서는 크로아티아 미술 작품 중에서도 가장 최고 수준의 작품을 만나 볼 수 있다.



박물관의 밤 (NOĆ MUZEJA)

매년 하루, 밤늦게까지 무료로 박물관을 구경할 수 있다. 박물관의 밤이라고 불리는 이 행사는 자그레브 뿐만 아니라 크로아티아의 다른 지역에서도 함께 운영된다.



아트 파빌리온 (UMJETNIČKI PAVILJON)

본래 1896년 부다페스트 밀레니엄 전시회에서 크로아티아 관으로 사용된 이 파빌리온은 국제적으로 저명한 예술가들의 전시회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크로아티아 최초의 조립식 건물로 레누치의 말발굽 루트에서 놓칠 수 없는 명소이다.



브로큰 릴레이션십 박물관 (MUZEJ PREKINUTIH VEZA)

세계 여러 나라를 순회하며 기증받은 물품을 전시하고 있는 이 박물관은 자그레브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박물관 중 하나이다. 세계 각국에서 모인 친숙하지만 실연의 사연이 깃든 전시품과 함께 모든 종류의 실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 박물관의 설립자이자 자그레브 출신의 예술가였던 두 사람은 한때 연인 사이였는데, 두 사람이 헤어지면서 공동소유했던 물품을 누가 가질지 고민하다 이 박물관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여러 나라에서 전시회를 열면서 더 많은 물건들이 모이게 되었고, 결국 자그레브의 어퍼타운에 상시전시장을 열게 되었다. 2011년에는 유럽에서 가장 혁신적인 박물관에 수여되는 케네스 허드슨 상을 수상하였다.

클로비체비 드보리 갤러리

(KLOVIĆEVI DVORI)

17세기 지어진 옛 예수회 수도원에 들어선 이 갤러리는 순수미술작품을 주로 전시하고 있다. 대중의 높은 관심을 받는 전시회, 워크샵, 강연과 같은 중요 예술문화행사가 이 곳에서 많이 개최된다.

그 외 꼭 가봐야 하는 박물관:

고문박물관 (MUZEJ TOR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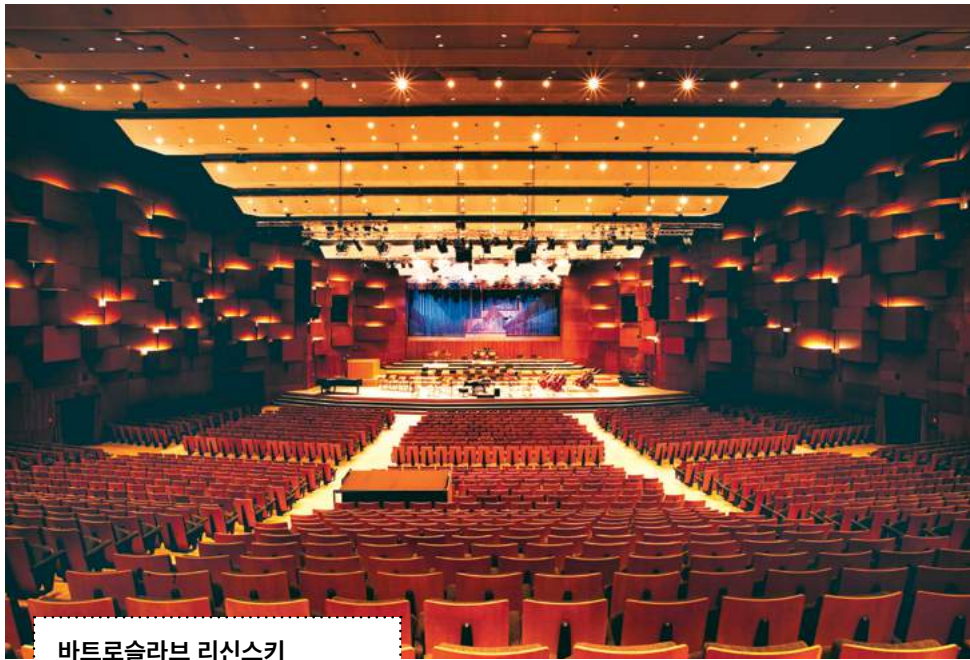
— 다른 세대의 고문기구나 처형기구를 전시해놓은 곳으로 약간은 불편한 느낌까지 줄 수 있지만 흥미로운 박물관이다.

착시박물관 (MUZEJ ILUZIJA)

— 착시현상을 이용한 흥미롭고 재미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버섯박물관 (MUZEJ GLJIV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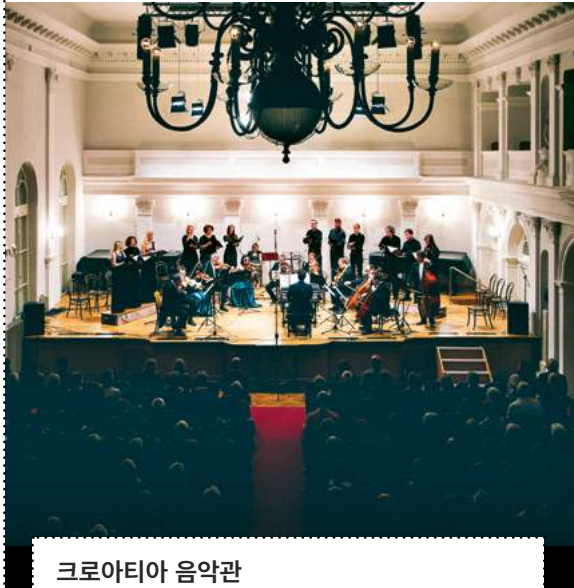
— 흥미롭고 교육적인 이야기로 수많은 종류의 버섯을 만나볼 수 있다.



**바트로슬라브 리신스키
콘서트홀**

**(KONCERTNA DVORANA
VATROSLAVA LISINSKOG)**

최초의 크로아티아 오페라의 작곡가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이 콘서트 홀은 자그레브의 최고의 문화시설이다. 볼쇼이 극장, 밀라노의 스칼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비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합주단에서부터 루치아노 파파로티, 호세 카레라스, 몽세라 카바예 같은 성악가까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이곳에서 공연을 가졌다. 클래식 음악뿐만 아니라, 리신스키(Lisinski)에서는 닉 케이브, 티나 터너, 엘라 피츠제럴드와 같이 팝, 재즈, 아방가르드 같은 다른 음악 장르의 유명한 가수들도 이곳에서 공연했다.



크로아티아 음악관

(HRVATSKI GLAZBENI ZAVOD)

1876년에 지어진 건물에 위치한 음악원에는 크로아티아에서 가장 오래된 콘서트 홀이 있다. 이 콘서트 홀은 뛰어난 음향시설로 음악 공연 최적의 장소라 할 수 있다.



**크로아티아 국립극장
(HRVATSKO NARODNO
KAZALIŠTE)**

기념비적이고 역사적인 크로아티아 국립극장은 1895년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공연뿐만 아니라 건축학적인 특징만으로도 이곳을 방문할 가치가 충분하다. 최고 수준의 오페라, 드라마, 발레. 그리고 각종 공연들로 구성된 풍부한 프로그램은 잊지 못할 경험을 보장한다.

음악원 (MUZIČKA AKADEMIJA)

크로아티아에서 가장 오래된 음악학원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음악가들이 이곳을 거쳐갔다. 이곳의 학생과 졸업생은 학원과 콘서트 홀을 오가며 셀 수 없이 많은 콘서트와 쇼, 행사에 참여한다. 2014년 음악원은 무지개 색으로 장식된 지붕을 가진 독특한 디자인의 건물로 이전했다.

거리 위의 예술
음악원의 입구에는
'바늘'이라고 불리는 29
미터 높이의 뾰족한
은도금 조각상이 있다.



자그레브의이벤트

매일 누군가를 위한 어떤 것



더 알아보기



자그레브에서 재미있는 일을 찾는 것이 이토록 쉬웠던 적은 없었다. 야외무대에 걸맞는 창의적인 기획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이 늘어나면서 매년 새로운 축제와 이벤트가 생겨나고 있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장소에서 벗어나 콘서트 홀이나 클럽, 혹은 거리나 광장과 같은 일상생활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친숙한 장소에서 다양한 행사가 많이 개최되고 있다.

자그레브 디자인 단지

(DESIGN DISTRICT ZAGREB)

자그레브의 한 지역에서 열리는 이 축제는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지역발전에 기여해야한다는 아이디어를 홍보하고 있다. 매년 6월이면 마르티체바(Martićeva) 거리의 일부분이 축제 동안 디자인, 예술, 그리고 오락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 바뀐다. 이 기간 동안, 지역의 예술가와 작가는 그들의 작품을 자그레브와 세계에 소개한다. 각종 행사는 지역사회 생활을 성장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전략을 선보인다. 맛있는 음식과 관광기념품을 홍보하고, 야외 공연, 문학의 밤, 창의적 워크샵, 교육산책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창조 허브의 역할을 하는 지역사회로 자리잡는 것을 목표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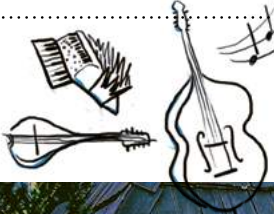
이블레르 하이라이즈
(IBLEROV NEBODER)
'나무 마천루'라는 애칭의 자그레브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1958년에 건설되었다.



스트로스에서의 여름

(LJETO NA ŠTROSU)

자그레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름 축제는 스트로스마이어 산책로에서 열린다. 파리 몽마르트의 예술 정체성을 기리며 '스트로스마르트'라는 별명이 붙여졌다. 여름이면 와인 한잔과 함께 라이브 음악을 듣거나, 자그레브의 전경을 즐기기에 적당하다. 여름의 스트로스를 찾는 관광객은 두 가지의 행사를 즐길 수 있는데, 가장 예쁜 잡종견 선발대회와 '반년의 날'을 축하하는 불꽃놀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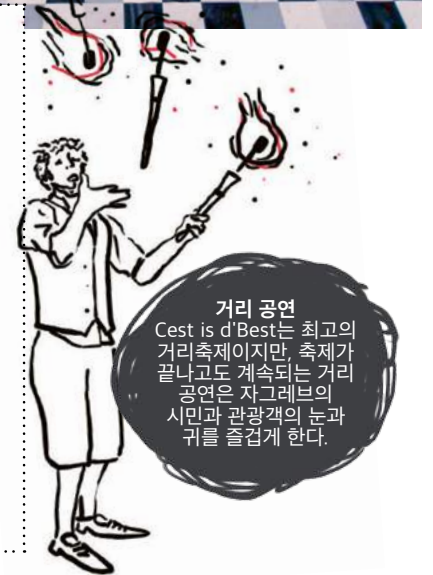
CEST IS D'BEST

다채로운 거리축제 'Cest is d'Best'가 없는 자그레브는 상상할 수가 없다. 자그레브가 가진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이 축제는 반드시 야외에서만 개최되는데 이 축제의 관중과 구경꾼 모두가 축제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축제의 행사는 모두가 참여하는 방식인데, 그 예로 다양한 경주 (아기, 웨이터, 환경미화원 달리기 등), 외국어 교실, 자전거 늦게 달리기, 거리 피아노 등이 있다. 도시의 구석 구석에서 무대와 거리 구분없이 콘서트가 열리는 Cest is d'Best는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축제이다.



드보리슈타 (DVORIŠTA)

안뜰은 자그레브 도시풍경을 대표하는 장소이다. 하지만, 어퍼타운의 바로크 양식 저택의 안뜰처럼 평소에 보기 힘든 호화롭고 기품있는 안뜰은 드보리슈타(Dvorišta) 축제기간 동안에만 공개된다. 방문객들은 이 곳에서 멋들어진 라이브 음악,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과 음료, 그리고 자그레브의 역사의 흥미롭고 교육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매년 새로운 안뜰이 공개되는데, 이 도시의 사적이고 은밀한 특권층의 공간을 들여다볼 수 있다.



거리 공연
Cest is d'Best는 최고의 거리축제이지만, 축제가 끝나고도 계속되는 거리 공연은 자그레브의 시민과 관광객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한다.

클래식 자그레브

(ZAGREB CLASSIC)

행복감을 주는 이 문화축제는 모든 장르의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딱 알맞은 축제이다. 우아하고 전원적인 토미슬라브왕 야외광장에서 열리는 행사에는 필하모닉, 재즈 합주가 연주될 뿐만 아니라 잘 다듬어진 잔디 위에서 영화상영, 클래식, 팝 가수의 라이브 공연을 즐길 수 있다.



세계적인 명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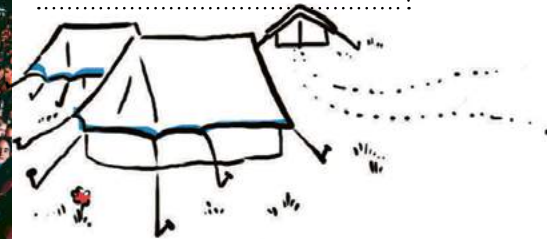
매년 세계 각국에서 4만 명이 넘는 음악팬이 인뮤직 페스티벌을 찾고 있다.



인 뮤직 페스티벌

(INMUSIC FESTIVAL)

크로아티아에서 가장 큰 야외행사, 인 뮤직(INmusic) 페스티벌은 세계적인 음악축제 리스트에 그 이름을 올리고 있다. 매년 6월, 아룬 호수 3개의 섬에서 개최되는데, 참가자는 축제가 열리는 기간동안 캠프도 함께 즐길 수 있다. 이 축제의 라인업을 보면 한 번 이상 참여한 유명 뮤지션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숲 속에 설치된 무대와 장관을 만드는 테슬라 타워를 모티브로 한 무대 장치 같은 극적인 요소들이 매년 개최되는 이 축제의 열광적인 분위기를 더욱 고조 시킨다.



자그레브의 열굴

자그레브 타임머신 기간에는 크로아티아 최초의 여성 작가, 마리아 유리치 자고르카 (Marija Juric Zagorka) 와 마주치거나, 크로아티아 작가 안톤 구스타브 마토슈와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다.



자그레브 타임머신

(ZAGREBAČKI VREMEPLOV)

4월에서 10월까지, 도시 곳곳에서 다양한 음악, 무용, 무대공연이 열리는데, 이 모든 행사는 공통적으로 자그레브의 옛날 모습을 재연하고 있다. 이 기간 중 주말이면 전통복장을 입은 '쿠미차' 아주머니, 당시의 복장을 입은 자그레브 역사 속의 인물들을 거리에서 만날 수가 있다. 트린예바츠 공원에서 산책로 공연이 열리고, 전통 넥타이를 맨 옛날 경비대의 교대식도 볼 수가 있다. 이 모든 행사는 역사 속 자그레브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게 한다.

빛의 축제 (FESTIVAL SVJETLA)

한시적으로 자그레브 특정한 장소에 조명을 밝히는 독특한 이 프로젝트는 자그레브에서 소외되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장소에 사람들이 다시 주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행사는 자그레브, 자그레브의 시민, 그리고 방문객 사이의 보다 깊은 교류를 가능하게 한다.

열린광장의 날 / 오픈스퀘어 데이

(DAN OTVORENOG TRGA)

크로아티아공화국 광장에서 열리는 이 축제는 다양한 문화교육 활동 제공에 그 목적 있으며 매년 자그레브 가을문화축제의 초반에 시작된다.

이날 하루만큼은 이 지역 전체가 발레, 오페라, 연극 등, 여러 문화행사의 무대가 된다.

이 무대는 자그레브에 있는 크로아티아 국립박물관 소속의 예술가에 의해 꾸며진다.





발...발타자르
 애니메이션 발타자르 교수 시리즈는 자그레브 애니메이션영화 학교가 만든 영화 중 가장 잘 알려진 작품이다. 어린이 애니메이션의 클래식이라 할 수 있는 이 작품의 판권은 30개국 넘는 나라에 판매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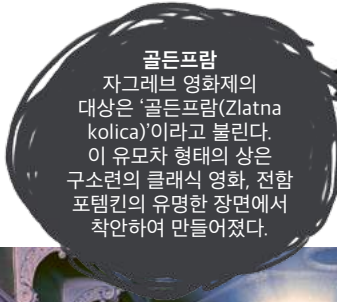


아니마페스트 (ANIMAFEST)

아니마페스트는 1950-60대, 전 세계 애니메이션계에 큰 영향력을 가졌던 자그레브 애니메이션영화 학교를 기리기 위해 1972년 처음 시작되었다. 오늘날 아니마페스트에서는 전 세계 최고의 장단편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나 볼 수 있다. 매 짝수 년에는 단편, 홀수 년에는 장편영화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장단편 구분 없이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그레브의 6월을 기다린다.

자그레브독스 (ZAGREBDOX)

이 지역 유럽의 가장 큰 국제다큐멘터리축제인 자그레브독스는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교환되는 곳이다. 창의적이고 포용적인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생각을 주고받고,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게 한다. 참가자는 다큐멘터리 영화 워크숍과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자그레브독스는 매년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진행된다.



골든프람
 자그레브 영화제의 대상은 '골든프람(Zlatna kolica)'이라고 불린다. 이 유모차 형태의 상은 구소련의 클래식 영화, 전함 포템킨의 유명한 장면에서 착안하여 만들어졌다.

자그레브 영화제 (ZAGREB FILM FESTIVAL)

자그레브 영화제는 매년 가을만을 기다리게 만든다. 이 축제는 사회적 행사로서의 기능도 훌륭하게 소화하지만, 질 좋은 영화로 구성된 프로그램이 가장 큰 자랑거리라 할 수 있다. 축제 기간동안 선정된 최고의 영화, 배우에게는 상이 수여되고, 책출간이나 영화산업기술 소개와 같은 다른 행사의 관계자도 참석하여 관련 내용을 소개하기도 한다. 동시에 열리는 애프터파티 또한 이 축제에서 놓칠 수 없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자그레브 판타스틱 영화 축제 (FANTASTIC ZAGREB FILM FESTIVAL)

영화광, 특히 SF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꿈과도 같은 여름 축제이다. 흥미로운 영화를 만날 수 있다는 것 외에도 메드베드그라드의 성과 같이 특별한 야외장소에서 영화를 즐기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불온영화축제 (SUBVERSIVE FILM FESTIVAL)

정치, 사회, 경제, 그리고 문화에 관한 이야기하는 국제적인 포럼이자 축제이기도 한 이 행사에서는 잘 골라진 영화의 상영, 강연, 그리고 토론 등에 참여할 수 있다. 매년 5월에 개최된다.





투어의 한 부분으로, 관람객은 크로아티아의 유명한 작가, 마리아 유리치 자코르스카와 그녀의 소설 속 등장인물을 만날 수가 있다. 또한, 16세기 크로아티아 농민봉기의 영웅, 마티야 구베츠(Matija Gubec)가 처형되는 장면이 재연된다.

그리치의 비밀 (TAJNE GRIČA)

자그레브의 여름행사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관객참여형 연극투어이다. 어퍼타운에서 밤에 진행되는 이 투어는 자그레브의 역사 속을 탐험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잘 알려지지 않은 자그레브의 비밀이야기와 로맨스 등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씩 찾아가는 이 투어는 영어와 크로아티아어, 두 가지 언어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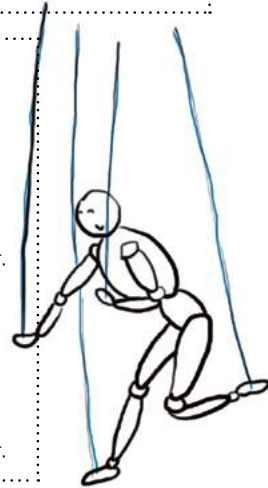
JAZZ.HR

이 축제는 자그레브에서 진행되던 별개의 재즈 행사를 한데 합치면서 시작된 축제이다. 봄과 가을에 각각 진행되는 이 축제에는 크로아티아 출신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재즈 뮤지션의 환상적인 라인업을 자랑한다.

국제인형극축제

(PIF — MEĐUNARODNI FESTIVAL KAZALIŠTA LUTAKA)

자그레브의 에스페란토어 연구가들이 모여 시작하게 된 이 축제는 인형극 계에서 가장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매년 9월이면 세계 각국의 인형장인들이 PIF에 참석하기 위해 자그레브로 모인다. 주요 프로그램은 인형극 연구회, 인형전시회, 워크샵 그리고 자선행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그레브 골든 피루엣

(ZLATNA PIRUETA)

자그레브 골든피루엣(Zlatna pirueta)은 시니어 피겨스케이팅 주요 경기 중 하나이다. 1968년 처음 시작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관련 행사 중 하나로, 남녀싱글, 페어, 아이스댄싱 카테고리에서 세계적인 피겨선수들이 경쟁한다.

한제코비치 육상대회

(HANŽEKOVIČEV MEMORIJAL)

'한제크(Hanžek)'라는 애칭을 가진 이 육상대회가 1958년에 처음 시작되었을 때에는 지역행사 정도의 규모였다. 이후 1991년, 국제육상경기연맹 IAAF에 의해 국제 그랑프리 대회로 분류되었고, 2009년에는 IAAF 국제챌린지시리즈의 정규대회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제 매년 여름이면, 각 나라를 대표하는 육상선수들이 이곳에 모여 자신이 갖고 닦은 기량을 선보인다.



자그레브 마라톤

(ZAGREBAČKI MARATON)

자그레브 마라톤이 1992년 처음 개최되었을 때, 스타트 라인에 있던 참가자는 고작 70여 명이었지만, 오늘 날에는 수 천명이 넘는 참가자가 등록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마라톤 경기이기 때문일 것이다. 자그레브 마라톤 대회의 코스는 적은 곡선 코스와 완만한 경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따라서 안정적인 리듬을 유지할 수 있어 좋은 기록을 얻기가 쉽다. 특히 하프마라톤이 도입되고 나서는 일반 참가자들의 수도 크게 증가하였다. 이 대회는 매년 10월에 개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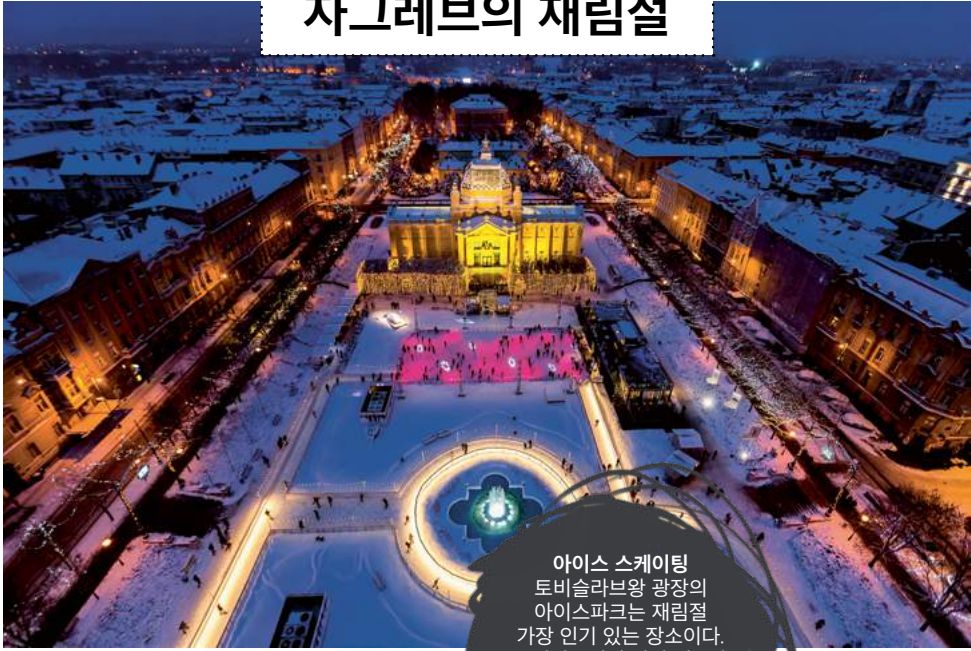
스노우 퀸 트로피

(SNJEŽNA KRALJICA)

2005년에 처음 시작한 알파인 스키 월드컵 대회로 메드베드니차 산의 정상에서 시작하는 슬랄롬 회전 경기이다. 매년 1월, 이 경기에 참여하고 구경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선수와 관중이 자그레브로 모여든다. 스노우퀀트로피 대회의 특징 중 하나는 수도와 가까운 곳에서 열린다는 점이다. 이 대회의 우승자는 수공예로 만들어진 왕관을 수여 받게 된다.

스노우 퀀 트로피는 세계 최고의 여성 알파인 스키선수, 전설의 야니차 코스텔리치(Janica Kostelić)의 별명을 따서 만들어졌다. 야니치는 그녀의 남동생, 이비차 코스텔리치(Ivica Kostelić)와 함께 메드베드니차 산에서 처음으로 스키를 배웠다.

자그레브의 재림절



아이스 스케이팅
 토비슬라브왕 광장의
 아이스파크는 재림절
 가장 인기 있는 장소이다.
 시민들에게 인기 있는
 레저활동이지만 모두
 생각보다 매우 진지하게
 스케이팅에 집중한다.



겨울의 간식
 자그레브의 겨울은 다양하고
 풍부한 거리 음식으로
 넘쳐난다. 길거리의 튀김빵
 '프리틀레(fritule)'와 소세지의
 향기가 사람들을 끌어 모으고,
 달콤하고 따뜻한 와인
 사람들의 언 손을 녹여준다.



재림절의 첫 촛불이 밝혀지면 자그레브의 재림절이 시작되고, 재림절의 즐거움이 도시에 흘러넘치기 시작한다. 크리스마스 마켓 가판대가 줄을 서고, 현저스타일과 퓨전스타일을 아우르는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이 지나가는 사람의 발길을 붙든다.

눈 내린 즈린예바츠
 1891년에 지어진 즈린예바츠 공원의 파빌리온에서 울려 퍼지는 아마추어 합창단의 캐롤 소리와 그 풍경은 기억에 오래남을 만한 추억거리이다. 새하얀 눈으로 뒤덮인 공원의 나무아래 전통 음식과 음료를 파는 오두막은 동화 속 한 장면을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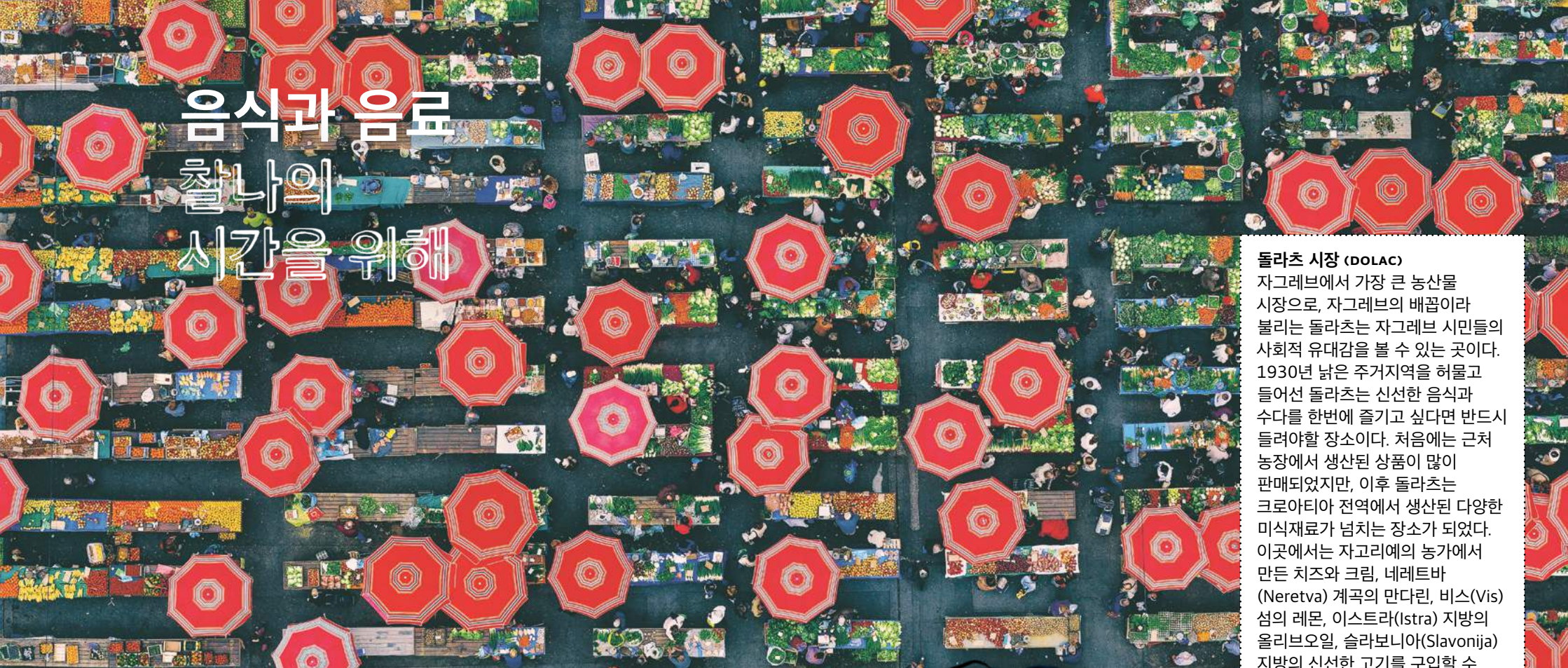
크리스마스 마켓
 크리스마스 쇼핑을 위해서라면 이곳만한 곳이 없다. 맛있는 명절 음식뿐만 아니라 시장의 가판대에서는 진저브레드 하트, 리치타리(licitari)와, 허니쿠키 등 자그레브에서만 만날 수 있는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다.



자그레브 대성당 앞에는 예수의 탄생 장면이 재연되고, 도시의 광장은 그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발산한다. 그린예바츠 공원에서 알츠를 즐기고 합창단이 부르는 캐롤을 들을 수 있으며, 토비슬라브왕 광장의 넓은 스케이팅장에는 스키를 즐기는 인파가 넘쳐난다. 놀랍고 재미난 요소를 가진 새로운 행사가 색다른 장소에서 계속 생겨나고 있어 자그레브의 재림절 모습은 매년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음식과 음료 찰나의 시간을 위해



돌라츠 시장 (DOLAC)
 자그레브에서 가장 큰 농산물 시장으로, 자그레브의 배꼽이라 불리는 돌라츠는 자그레브 시민들의 사회적 유대감을 볼 수 있는 곳이다. 1930년 낡은 주거지역을 허물고 들어선 돌라츠는 신선한 음식과 수다를 한 번에 즐기고 싶다면 반드시 들려야 할 장소이다. 처음에는 근처 농장에서 생산된 상품이 많이 판매되었지만, 이후 돌라츠는 크로아티아 전역에서 생산된 다양한 미식재료가 넘치는 장소가 되었다. 이곳에서는 자고리에의 농가에서 만든 치즈와 크림, 네레트바(Neretva) 계곡의 만다린, 비스(Vis) 섬의 레몬, 이스트라(Istra) 지방의 올리브오일, 슬라보니아(Slavonija) 지방의 신선한 고기를 구입할 수 있다. 돌라츠 바로 위쪽의 페트리차 케렘푸흐(Petrica Kerempuh) 광장에서는 형형색색의 꽃시장이 열린다.

더 알아보기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틀에 박힌 일상의 한 부분이 아니라 타협없이 진심으로 즐겨야 하는 것이다. 수많은 자그레브의 크고 작은 식당과 바, 카페 중에서 마음에 드는 곳을 고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저 한끼를 먹을 것인가 혹은 디저트를 먹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 보다는 어떤 종류의 음식을 더 선호하는지 먼저 생각해야 한다. 또한 양념에 상관 없이 음식은 항상 신선해야 한다.



자그레브의 쿠미차
 옛날부터 근처 마을에서 자신이 직접 키우고 만든 상품을 돌라츠에서 판매하던 아주머니를 쿠미차(kumica)라 불렀다. 쿠미차는 시장의 중심이자 돌라츠의 정신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매일 신선한 과일과 야채, 달걀, 옥수수빵, 유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없어서는 안될 그들의 역할과 헌신에 감사하며 만들어진 쿠미차의 동상이 돌라츠 시장 입구에 서있다.

다른 나라의 수도처럼 자그레브도 바로 이웃하는 나라 혹은 그보다 훨씬 더 먼 나라의 각기 다른 문화적 요소들이 만난다. 독일어처럼 들리는 음식의 이름은 자그레브와 중앙 유럽과의 연관성이 반영되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셀 수 없이 많은 지중해와 중동의 요리법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 오늘날 자그레브의 요리는 그 누구라도 즐길 수 있을 만큼 그 종류가 풍부하고 다양하다. 이 곳에서 만날 수 있는 메뉴가 가진 장점은 동서양의 퓨전 음식, 고급 요리, 질 좋은 거리음식에서 만날 수 있는 세계적이고 전통적인 음식의 다양함이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집에서 만든 전통음식이 자그레브에서의 일상을 더욱 특별하게 만든다. 아래 소개되는 음식은 전형적인 전통요리이다.



농산물시장

자그레브 시민은 시장에서 적은 양을 필요할 때마다 구입하는 것을 좋아한다. 자그레브에는 각 지역에 25곳의 시장이 있으며, 이 곳에서는 크로아티아 전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그린차그

자그레브의 식사메뉴 중에서도 스프는 식사를 시작할 때 먹는 음식이다. 좋은 스프를 만드는 것은 역시 육수인데, 그래서 장을 보는데 있어서 당근, 파슬리, 샐러리, 케일 등 육수용 채소 묶음 '그린차그 (grinčajg)' 를 잘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바로 그린차그의 차이가 바로 스프 맛의 차이를 만들기 때문이다.



몰린치와 칠면조 요리

자그레브에서 명절에 먹는 특별한 대표적인 메뉴는 소스를 계속해서 끼얹어가며 천천히 익히는 칠면조 요리이다. 이 요리에 반드시 곁들이는 음식이 바로 '몰린치(mlinci)'이다. 몰린치는 자그레브와 그 주변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먹는 얇은 빵 종류라 할 수 있다. 밀가루, 물, 그리고 약간의 소금이 들어간 반죽으로 만들어 뜨거운 팬에서 딱딱하게 익힌다. 메인요리에 곁들일 때는 끓는 물에 넣어 데치면 부드러워 지는데 이를 메인 칠면조 요리의 소스에 적셔 함께 먹는다.



아펠 슈트루들

오랫동안 사랑받는 이 고전적인 디저트는 자그레브의 많은 가정에서 사랑받고 있다. 갈아낸 사과에 시나몬 가루, 럼주를 섞은 다음 필로 페스트리 시트에 넣고 말아서 구워낸다. 이 디저트의 향기는 그야말로 환상적이다. 집집마다 슈트루들(štrudel)을 만드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데 절대 아무에게나 알려주지 않는다.

자그레브의 와인루트

와인 애호가라면 목이 마른 채 자그레브를 지날 수가 없다. 자그레브와 그 주변지역은 매력적인 와인루트가 많다. 심지어 트칼치체바와 라디체바 거리가 만나는 곳인 자그레브의 중심에서도 숨겨진 포도밭이 있을 정도이다. 자그레브의 와인컨트리리는 자그레브의 동쪽 교외지역, 고르냐 두브라바 (Gornja Dubrava) 지역에서 세스베테(Sesvete) 지역으로 이어진다.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지만 이 지역의 와인 생산지는 기대하지 않았던 새로운 즐거움을 원하는 사람에게 안성맞춤인 곳이다. 사모보르(Samobor), 플레쉬비차 (Plešivica), 그리고 스베티 이반 젤리나(Sveti Ivan Zelina) 지역을 포함하며 이미 자체적인 브랜드까지 갖춘 자그레브 주의 와인루트는 당일치기 여행에 알맞은 코스이다.

성마틴의 날 (MARTINJE)

11월 중순, 성마틴의 날이 가까워지면 자그레브 주의 포도밭과 와인셀러가 바빠지기 시작한다. 이 때는 비교적 짧은 기간 숙성된 와인이 많이 소비된다. 그렇다고 해서 오래 숙성된 와인을 많이 마시지 않는 것은 아니다. 자그레브의 시민들은 바쁜 도시를 벗어나 지역 포도농장의 주인들과 그들의 노고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함께 즐긴다.

슈트루클리 (ŠTRUKLI)

모든 상황에 다 먹을 수 있는 슈트루클리는 그 종류에 따라 달거나 짜기도 하고, 오븐에 구울 뿐 아니라 삶아서 만들기도 한다. 전채요리, 메인코스, 디저트 등 다양하게 먹을 수 있으며 심지어는 스프에 적셔서도 먹는다. 필로 페스트리, 코티지 치즈, 크림, 계란으로 만든 이 소울푸드를 자그레브에서는 짬맛의 치즈를 채운 다음 오븐에 구워서 먹는다.



거리음식축제

자그레브의 거리음식과 축제에는 부족함이란 있을 수가 없다. 일년 내내 도시 곳곳의 작은 식당은 간단한 요기거리가 필요할 때 가장 좋은 선택이다. 하지만 자그레브의 거리 음식은 공원과 광장에서 열리는 수많은 야외축제 때 먹는 것이 단연코 최고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축제에서는 문화테마나 오락활동과 함께 거리음식이 좋은 궁합을 만든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영화와 음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축제인데, 관람객들은 잔디 위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커다란 스크린의 영화를 동시에 즐긴다.



코티지 치즈와 크림 (SIR I VRHNJE)

이 전통 음식은 수세기 동안 근처 농장에서 만들어져 자그레브 시민들의 식탁 위에 올려져 왔다. 코티지 치즈와 크림은 때에 따라 각기 다른 양념을 해서 다양한 채소와 곁들여 먹는다. 특히 자그레브에서는 시장에서 이 치즈를 구입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데, 바로 '쿠미차'에게서 사는 것이다. 쿠미차는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직접 치즈와 크림은 만들고 판매하는데 자그레브의 주부들은 그들만의 단골 쿠미차가 있다.

크래프트 맥주

자그레브에는 긴 양조 전통을 가진 몇몇의 유명 맥주 브랜드가 있다. 오늘날에는 소규모 양조업체가 많이 증가해서 양질의 크래프트 맥주를 만들어내는 업체도 많이 배출되고, 에일 맥주에 대한 애정과 전통 방식을 결합하여 맥주를 만들어내는 업체들도 새롭게 생겨나고 있다.



커피마시러 같까요?

커피는 자그레브 시민이 가장 좋아하는 음료임에는 한치의 의심이 없다. 자그레브에서 커피를 마시는 것은 지인과 친분을 쌓기 위한 사회적 의식에 더 가깝다. 그래서 거리에는 문자 그대로 카페가 넘쳐난다. 'idemo na kavu - 커피마시러 가자' 라는 표현은 그저 음료의 한 종류를 마시는 것을 넘어 사교활동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듯 하다.



식당 선택하기

자그레브 사람들은 음식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새로운 식당이 문을 열었다는 소식은 빠르게 알려진다. 특히 그 식당이 좋은 음식과 적절한 가격을 가지고 있다면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자그레브에서의 외식은 날마다 새로운 경험이 될 것이다. 최근에는 현지식, 퓨전, 이국적 음식을 취급하는 식당보다 독창적인 요리를 선보이는 곳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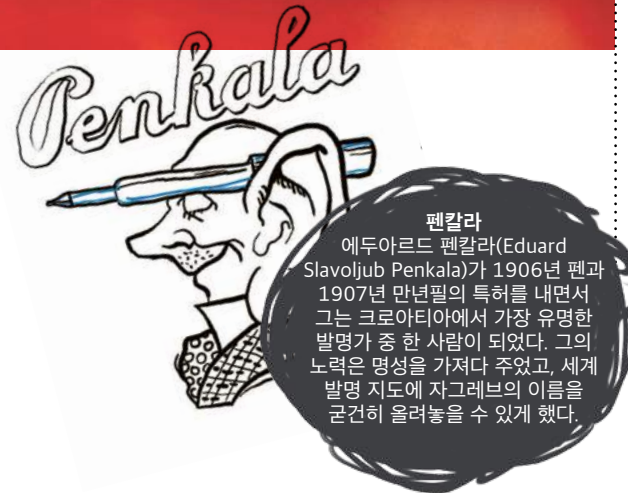
쇼핑과 오락 자그레브를 집으로 데려가기



더 알아보기



자그레브에서 오락거리를 찾는 것은 점점 더 쉬워지고 있다. 낮과 밤 구분 없이 자그레브를 보다 풍요롭고 개방적인 도시로 만드는 새로운 장소가 많아지고 있다. 그 중 몇 군데는 이 지역 유럽에서 가장 흥미로운 오락거리를 제공하는 곳도 있다. 쇼핑 또한 절대 놓칠 수 없는 여행의 즐거움이다. 재미난 기념품부터 멋진 디자이너의 작품까지 매력적이고 다양한 범위의 쇼핑거리 때문에 빈손으로 자그레브를 떠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크로아티아 디자인의 기념품
최근 몇 년간 자그레브의 디자이너들은 기념품에 대해 전혀 다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실용적이고 자그레브에서의 경험을 기억하게 할 수 있는 기념품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생각하고 디자인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몇몇의 기념품점은 대량생산되는 기념품 대신에 자그레브에서의 기억을 오랫동안 소중히 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현지 디자인 상품을 내어놓고 있다.

펜칼라
에두아르드 펜칼라(Eduard Slavoljub Penkala)가 1906년 펜과 1907년 만년필의 특허를 내면서 그는 크로아티아에서 가장 유명한 발명가 중 한 사람이 되었다. 그의 노력은 명성을 가져다 주었고, 세계 발명 지도에 자그레브의 이름을 굳건히 올려놓을 수 있게 했다.



세스티네 우산
(ŠESTINSKI KIŠOBRAN)
밝은 빨간색의 이 우산은 메드베드니차 산 아래의 한 마을, 세스티네(Sestine)의 상징을 모티브로 한 다채로운 색상으로 장식되어 있다. 눈에 띄는 이 디자인은 이제 자그레브를 상징하는 시각적 이미지가 되었다. 세스티네 우산은 대부분의 자그레브의 상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기념품이기도 하다. 돌라츠 시장의 가판대도 세스티네 우산을 모티브로 만든 파라솔이 설치되어 있다.

진저브레드 하트 (LICITARSKO SRCE)
원래 사랑과 우정의 징표였던 진저브레드 하트 혹은 현지어로 리치타르스코 스르체(licitarsko srce)는 가장 잘 알려진 자그레브의 기념품이다. 독특한 모양의 이 수공예품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파프레냐크 비스킷
(PAPRENJAK)
자그레브 전통 비스킷 파프레냐크(paprenjak)는 달고 매운 독특한 맛을 가지고 있다. 16세기 자그레브를 배경으로 한 아우구스트 세노아의 소설, '금세공인의 보물'에서는 자그레브 시민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으로 소개된다. 인기있는 상품으로 자그레브의 기념품 가게에서 만나볼 수 있다.



크로아티아 넥타이 (KRAVATA)
넥타이는 프랑스의 귀족에 의해 세계적인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지만, 넥타이를 제일 처음 사용했던 이는 바로 30년전쟁에 참가했던 크로아티아 군인들이었다. 오늘날 널리 사용되고 있는 넥타이는 다양한 디자인과 훌륭한 수공예 기술로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크로아티아의 기념품이다.

젊은 패션 디자이너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자그레브의 패션계에서 새로운 이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많이 생겨나고 있는 전문화된 컨셉 매장에서는 자그레브 출신 디자이너의 컬렉션이 선보여진다. 독특한 디자인의 옷이나 참신한 모양의 가정용품이 많이 있는 아울렛에서는 또 다른 쇼핑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자그레브의 공예가
자그레브에는 세계적인 브랜드와 성공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전통공예가가 많이 있다. 맞춤형, 맞춤형, 가죽제품, 세련된 모자까지 가족이 운영하는 작은 가게는 품질이 뛰어난 제품을 오랜 세월동안 선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제화공, 제단사, 그리고 모자공은 전통공예가나 현대기술자와 모여 새롭고 독창적인 수공예품을 만드는 스튜디오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쇼핑센터
자그레브의 쇼핑센터는 다양한 상품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도시 곳곳에 전략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여러 가게가 한 장소에 모여있어 보다 효율적으로 쇼핑을 할 수 있다.



즐거운 야외활동

봄여름의 따뜻한 날씨는 시민과 관광객을 야외로 불러낸다. 공원의 잔디밭에는 돛자리를 깔고 앉아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이 시기는 야외에서 만날 수 있는 음식과 음악공연이 많아, 야외에서 밴드의 음악을 들으며 가볍게 한 잔씩 즐기기에 좋다.

얼터너티브 음악

자그레브의 얼터너티브 음악계는 몇몇의 컬트클럽이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던 1970년대부터 자리잡기 시작하여, 그 자취는 최고 수준의 콘서트, DJ이벤트와 같은 음악행사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자그레브의 클럽비즈니스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어 팝에서 일렉트로닉까지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고 있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저 신나는 밤을 보내고 싶은 사람들을 클럽으로 불러모으고 있다. 자그레브의 음악계는 항상 놀라운 일이 가득하다.



카페와 바

평범했던 도시의 카페가 다양한 컨셉을 갖춘 카페와 바로 탈바꿈 하고 있다. 나무랄 데 없는 디자인과 센스있는 음료메뉴를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시민과 관광객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혼합예술과 재미

자그레브에서는 다른 형태의 문화가 만나 잘 결합되는 곳으로, 예술에 대한 믹스앤매치 스타일의 접근방식은 이 도시의 트레이드 마크라 할 수 있다. 갤러리에서의 라이브뮤직, 신나는 게임이 함께하는 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 등 모든 종류의 조합을 이곳에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이러한 행사는 실내에서 이루어지지만, 야외나 팝업시설까지 공간에 대한 제한도 없다. 갤러리 오프닝에서 밤을 시작하고 꼭두새벽까지 파티를 즐기는 것은 이곳에서 결코 드문 일이 아니다.



어린이를 위한 자그레브 가능성이 무한한 도시

자그레브 동물원

1925년에 개장한 자그레브 동물원은 동남부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동물원이다. 처음에는 두 마리의 부엉이와 세 마리의 여우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세계 각국에서 온 300마리가 넘는 개체 수를 보유하고 있다. 자그레브 동물원은 아이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가르치고 직접 생물학과 자연 보호를 체험하게 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잘 알려져 있다.



자그레브를 한 번 찾았던 사람이라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는 것을 꿈꾼다. 실내외 할 것없이 놀수 있는 곳이 많은 자그레브이기에 그것이 아이들이라고 해서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자그레브는 아이들의 입맛에 맞춘 특별 이벤트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물관은 어린이를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고, 어린이 극장에는 유아부터 볼 수 있는 다양한 레퍼토리를 제공하고 있다. 아이와 함께 하는 가족여행에도 자그레브는 훌륭한 여행지이다.

더 알아보기





어린이 극장

자그레브의 어린이 극장은 긴 역사를 가지고 있어 대부분의 현지인은 이곳에서 연극을 봤거나 학교 견학으로 방문했었던 추억의 장소이기도 하다. 어린이 극장은 여러 곳에 분포되어 있어 멀리 가지 않고 동네에 가까운 극장을 찾으면 된다. 극장에서는 흥미로운 연극이나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항상 재미가 넘친다.

천체투영관

우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니콜라 테슬라 기술박물관에 들리는 것도 좋다. 1층에는 짜이스(Zeiss) 천체투영관이 있는데 1965년에 처음 만들어져 시야를 넓혀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신나는 경험을 선사한다.

바츠코 미니 익스프레스

(BACKO MINI EXPRESS)

철도광이 모여 만들어지 열정적인 팀 덕분에, 자그레브는 동남유럽지역에서 가장 큰 철도 모형을 갖게 되었다. 100개는 가볍게 넘는 모형기차가 1050미터가 넘는 트랙 위의 터널과 마을 그리고 기차역을 지나다닌다.



크로아티아 자연사박물관

(PRIRODOSLOVNI MUZEJ)

어마어마한 수의 영구전시품과 상호작용형의 박제 혹은 디지털 동물 전시품은 아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준다. 몰입도가 높은 워크샵은 아이들로 하여금 생물학, 유전학에 흥미를 느끼게 만드는데 본인이 직접 DNA 를 조사할 수 있는 체험도 제공한다. 이 박물관이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 중에는 특별히 미취학 아동을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많다.



착시박물관 (MUZEJ ILUZIJA)

평범한 박물관이나 일상에서 잠시 시나미 벗어나보고 싶다면 착시 박물관이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똑바로 서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쪽으로 비스듬하다던가, 작은 사물이 크게 보인다던가, 아니면 '거울의 방' 에서처럼 사물의 모습이 무한히 반복된 다던가 하는 것처럼 평소에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 이 박물관의 놀이방에서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누구나 퍼즐을 풀거나 새로운 트릭과 게임을 즐길 수 있다.

크로아티아 학교 박물관

(HRVATSKI ŠKOLSKI MUZE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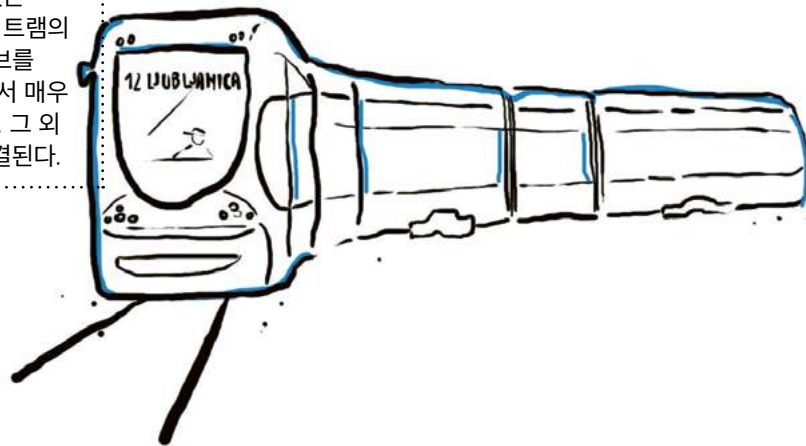
1901년에 개장한 뒤로 이 박물관은 크로아티아 교육역사에 대한 많은 자료를 수집-조사하여 전시하고 있다. 이 곳에서는 과거의 교육 자료나 학교에서 사용한 소품을 구경할 수 있다. 일년 동안 다양한 교육 워크샵도 개최하는데 공부도 다함께 하면 즐거운 놀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자그레브에서의 24시간



대중교통

자그레브의 대중교통에는 트램, 버스, 그리고 퍼니쿨러가 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생기있는 파란색으로 한눈에 띈다. 트램의 노선은 대부분의 자그레브를 포함하지만, 특히 도심에서 매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 외 지역은 버스로선으로 연결된다.



자그레브를 둘러보는 방법으로 트램을 이용하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 자그레브의 상징인 트램은 빠르고 편안하게 여행하기에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휴먼스케일에 딱 맞는 이 도시는 작지만 길을 찾기 어렵지 않고, 목적지가 어디든 긴 이동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대부분의 명소는 서로 가까이에 있어, 다음의 가이드를 참고로 어디에 가고 싶은지를 정하기만 하면 된다. 짧은 기간동안 자그레브를 찾는 여행객이라 하더라도 이 추천지는 당신의 여행을 보다 알차게 만들어 줄 것이다. 하지만 이곳에 포함되지 않은 곳은 다음을 기억할 수 밖에.

더 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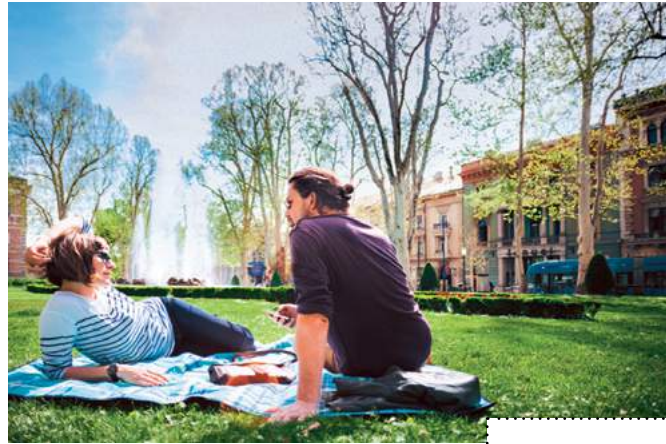


09.00 — 10.30

반 옐라치 광장을 둘러보는 것으로 시작해서 광장의 북쪽에 있는 돌라츠 시장을 둘러보고 자그레브 대성당으로 이동한다. 105미터 높이의 종탑 덕분에 대성당의 위치는 한 눈에 알 수 있다. 그 뒤쪽에 있는 예쁜 집은 성직자를 위해 18세기에 지어졌다.

10.30 — 12.00

예쁜 오파토비나 거리를 건다가 카페에서 커피나 현지의 크래프트 맥주를 마시며 잠시 쉬어간다. 이후 방향을 틀어 스칼린스카(Škalinska) 거리를 따라 걷다 보면 자그레브에서 가장 유명한 거리, 트칼치체바 거리에 들어서게 된다. 이곳에서는 라디체바 거리로 이어지는 펠빙거(Felbinger) 계단을 올라간다. 라디체바에서는 작은 계단식 포도밭을 볼 수 있다. 이 계단의 끝은 자그레브의 랜드마크, 스톤게이트로 이어진다.



12.00 — 14.00

여기서는 어떤 루트를 이용하더라도 화려한 자그레브의 어퍼타운을 만나볼 수 있다. 하지만 정오에 그리치 대포가 발사되는 로트르슈차크 타워는 반드시 가볼 만한 가치가 있다. 성 마크 광장도 놓칠 수 없지만 자그레브의 전형적인 어퍼타운의 매력을 발산하는 작은 골목길도 꼭 둘러보길 바란다. 옛 귀족의 저택을 미리 알아두어서 아름다운 안뜰을 슬쩍 엿보기도 하자.



16.30 — 19.00

과학문화기관이 많은 크로아티아 국립극장 쪽으로 향한다. 이곳에서부터 레누치의 말발굽을 따라 걸을 수 있다. 식물원이 나올 때까지 남쪽의 마주라니치(Mažuranić), 마롤리츠(Marulić) 광장 쪽으로 향한다. 이후 동쪽의 정원 속으로 혹은 정원을 따라 걷다 보면 자그레브 기차역과 아름다운 토미슬라브 왕 광장(Trg kralja Tomislava)에 닿게 된다. 초록빛의 길을 따라 스트로스마이어 광장을 지나 유명한 즈린예바츠 공원에 이르면 레누치말발굽 산책이 끝난다. 기분 좋은 분수와 그 옆에 파빌리온이 있는 즈린예바츠 공원은 자그레브 시민이 가장 좋아하는 공원이기도 하다.



14.00 — 16.30

퍼니쿨러에 올라타 자그레브의 가장 오래된 거리, 일리차 거리로 내려간다. 수많은 작은 가게와 식당 외에도 일리차는 눈길을 사로잡는 19세기의 우아한 건물을 뽐내고 있다. 자그레브 시민에게 커다란 거실 같은 야외카페가 많은 페타르 프레라도비치 혹은 꽃의 광장으로 향한다. 테슬리나(Teslina)와 마사리코바(Masarykova) 거리 근처에는 가게, 카페 그리고 식당이 많아 잠시 쉬어가기에 좋은 장소이다.

19.00 — ...

휴식이 필요한 시간. 자그레브를 한바퀴 둘러보고 난 이쯤이면 밤 나들이를 즐기기에 좋은 장소가 어디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트칼치체바, 오파토비나 혹은 테슬리나 거리에서 맛있는 식사나 가벼운 술 한잔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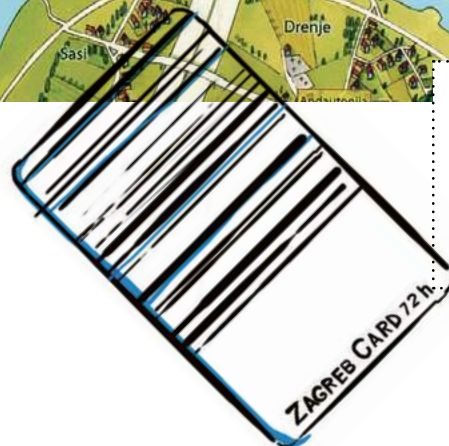
자그레브에서의 72시간



더 알아보기



3일 정도 머무르다 보면 자그레브에서의 생활이 어떤지 경험할 수가 있다. 자그레브의 유명 관광지를 둘러볼 시간도 충분하고, 단골 카페도 만들고, 트램을 타는 것도 익숙해질 수 있는 시간이다. 혹은 교외로 당일치기 여행을 다녀올 수도 있다. 하지만, 여행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즐기는 것. 거기에 자그레브는 넓은 선택의 폭을 제공한다.



자그레브 카드 (ZAGREB CARD)

자그레브 카드는 가장 알뜰한 방법으로 자그레브의 주요 관광지를 돌아볼 수 있는 아이템이다. 무료 대중교통 이용, 꼭 들러야 하는 명소의 무료 입장, 뿐만 아니라 식당, 쇼핑, 박물관 등에서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다.

첫째 날 — 꼭 봐야하는 자그레브 명소

오전

자그레브만의 박동을 느낄 수 있는 돌라츠 시장에서 출발한다. 꽤 활한 시장의 상인들을 보며 이곳의 분위기에 흠뻑 젖어본다. 무엇보다 여유를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서두름은 자그레브에서 통하는 방식이 아니다. 가게에 들러 맛있는 빵과 커피를 즐긴다. 간단한 식사를 마치고 나면 캅톨, 오파도비나, 트칼치체바 거리를 걷는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매력을 가진 어퍼타운을 만끽한다.

도심에서 커피를 토요일은 카페에서 친구를 만나는 사람들로 가장 많이 붐비는 시간이다. 하지만 곧 이곳의 사람들이 매일 하루의 일과처럼 커피를 마시고 평일 일하는 시간에도 짬을 내어 커피와 함께 휴식을 즐기는 모습이 익숙해질 것이다.

정오

퍼니쿨러를 타고 변화가의 분위기가 시작되는 로어타운으로 향한다. 이곳에서도 간단한 음료와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는 작고 아담한 가게를 많다. 자그레브의 '슈피차'를 따라 어슬렁거리를 보면 최신 패션트렌드에 대한 힌트도 얻을 수 있고, 쇼핑도 한번에 즐길 수 있다.

오후

레누치의 말발굽을 따라 가는 루트는 가장 즐거운 관광거리 중의 하나이다. 로어타운의 아름다운 곳을 소개해줄 뿐만 아니라, 자그레브에서 자랑하는 여러 박물관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저녁

자그레브에 가장 인기 있고 흥이 넘치는 장소는 트칼치체바, 오파도비나거리 그리고 페타르 프레라도비치 광장이다. 셀 수 없이 많은 카페와 식당 중에서 마음에 드는 곳을 골라 자그레브의 진짜 나이트 라이프를 즐겨보자.

신나게 놀기

정기적으로 라이브 음악과 DJ 이벤트를 하는 카페, 바, 클럽에서 신나는 밤문화를 즐길 수 있다. 해당 가게의 SNS를 팔로우하면 이벤트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둘째 날 — 도심 밖 둘러보기

오전

가까운 카페에 들러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자그레브의 모든 지역에는 전형적인 아침 일상을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많다.



정오

이 시간은 야외활동을 즐겨본다. 자전거를 타거나 공원을 산책해 보자. 자그레브의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없이 가까운 곳에 막시미르, 야룬, 투슈카나츠 같은 공원이 항상 있다.

오후

사바 강을 지나는 다리를 건너 자그레브의 남쪽 지역도 둘러본다. 현대미술관에 들렀다가 근처의 시원하게 트인 노비자그레브의 공원, 분수로 향한다. 이곳과 멀지 않은 곳에 사바 강변을 따라 쪽 뺨은 골프장이 있다.

분수
국립대학 도서관 맞은편의 공원에는 5개의 분수가 아름다운 앙상블을 만든다. 낮에는 시원하게 물을 뿜어내고 밤에는 조명과 한데 어우러진 모습이 장관을 만든다.

저녁

저녁 식사를 위한 특별한 장소를 찾아본다. 작은 식당에서 고급식당까지 선택의 폭은 넓지만 어느 곳을 선택하든 좋은 음식 맛은 보장할 수 있다.

셋째 날 — 당일치기 여행



| ODLAZAK | DEPART | DEPARTURE |
|---------|---------------------------------|----------------------------------|
| SAAT | YER | YER |
| 16:48 | D. + K. ČEČIJEVA - NIŠAN | CEI 0 |
| 16:44 | D. + K. ŽANDETA - ČUKIČKI | MODRE - LUDMILIN |
| 16:55 | D. + K. VANDI NIŠAN - NIŠAN | TKLJOTI TEVA |
| 16:57 | 10. VOTIČIČKI - VADTIČIČKI | ACTI TEVA |
| 16:57 | D. + K. ŽVEČIČKI - NIŠAN | CEI 0 |
| 17:01 | D. + K. ŽANDETA | |
| 17:04 | D. + K. NIŠAN | CEI 0 - VOTIČIČKI - D. TEI NIŠAN |
| 17:17 | D. + K. ČEČIJEVA - NIŠAN | CEI 0 |
| 17:28 | D. + K. TACTIČIČKI - VADTIČIČKI | MODRE - LUDMILIN |
| | 10. VADTIČIČKI - VOTIČIČKI | ACTI TEVA |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이쯤이면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커피와 함께 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엔 자그레브의 다채로운 주변지역을 방문할 준비를 한다. 가까운 슬레메(Sljeme)나 사모보르(Samobor)를 선택할 수도 있고 차로 90분 정도 걸리는 푸른 아드리아 해로 향할 수도 있다. 매력적인 역사적 도시, 성, 영주의 저택, 고고학 명소, 깨끗한 자연공원 그리고 세계유산까지, 선택지가 끝이 없다.

출발하기

자그레브 중앙기차역은 도심에 위치하고 있다. 자그레브나 시에서 운영하는 택시 서비스를 이용하면 역까지 쉽게 갈 수 있다.

자그레브 주변지역

아름다운 추억의 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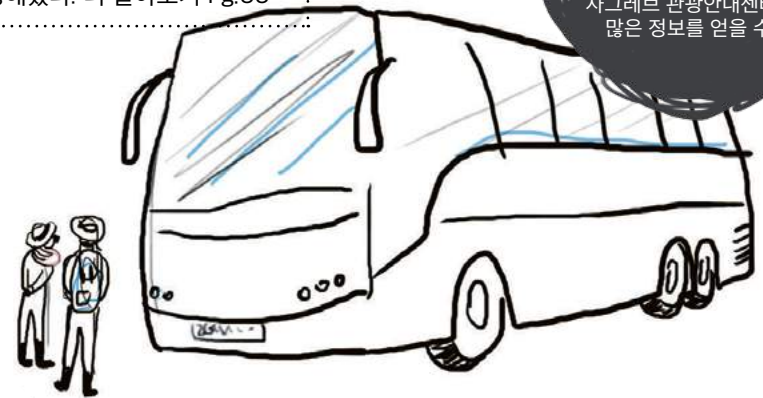


플리트비체 호수 (PLITVIČKA JEZERA)
 플리트비체 호수는 크로아티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을 자랑하는 곳임에 틀림이 없다. 플리트비체 자연공원은 환상적인 폭포와 터키석의 빛을 띤 호수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더 알아보기 Pg.88

여행 계획하기
 혼자서 당일치기 여행을 다녀올 수도 있고, 많은 여행사의 투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다. 자그레브 관광안내센터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더 알아보기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유산을 자랑하는 당일여행지가 자그레브 주변에는 셀 수 없이 많다. 산, 강, 호수 심지어 아드리아 해까지 이 모든 곳을 쉽게 갈 수 있다. 많은 역사적 도시와 장소도 자그레브 교외지역에 많이 흩어져있다. 이제부터 소개되는 보물과도 같은 장소는 한번쯤 방문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다. 짧게는 수세기 동안 오랜 역사를 가진 곳이고, 길게는 선사시대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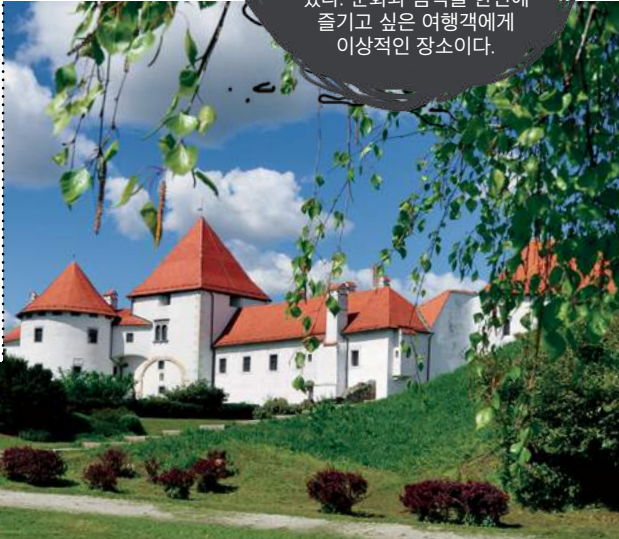
북부지역

바라즈딘 (VARAŽDIN) (87km / 65분)

잘 보존된 아름다운 바로크 양식의 도시, 바라즈딘 (Varaždin)은 한때 자그레브의 수도이기도 했다. 오토만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요새화된 바라즈딘의 성과 많은 저택이 옛날 이 도시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게 한다. 바라즈딘의 구시가지에는 발길을 사로잡는 박물관과 매혹적인 자태의 공원, 그리고 웅장한 극장이 있는 넓은 보행자거리가 있다. 매년 8월이면 바라즈딘은 슈판치르페스트(Špincifest)로 도시 전체에 활기가 넘친다. 이 축제는 라이브 음악, 시장의 가판대, 아이들의 놀이터, 거리의 오락거리를 신나게 즐길 수 있는 큰 야외 축제이다.



완만한 언덕의 자그레브 북부지역은 마치 동화 속에 나올 것만 같은 성과 친근한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으로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문화와 음식을 한번에 즐기고 싶은 여행객에게 이상적인 장소이다.



벨리키 타보르 (VELIKI TABOR) (70km / 72분)

15세기에 만들어진 이 성은 독특한 르네상스 시대의 가구를 전시하고 있는 인상 깊은 박물관이 되었다. 복원공사 중에는 보기 드문 많은 예술작품이 새롭게 발견되기도 했다. 벨리키 타보르 (Veliki Tabor)에서는 호평받고 있는 단편영화 축제인 타보르 영화축제가 열리는 곳이다.



트라코슈찬 (TRAKOŠČAN) (89km / 70분)

자고리에 지방의 많은 성 중에서도 북서쪽에 위치한 트라코슈찬(Trakošćan) 성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 처음 만들어진 13세기에는 언덕 위의 작은 요새에 불과했으나, 19세기에 귀족 드라슈코비치(Drašković) 가에 의해 푸르게 우거진 숲과 뱃놀이를 즐길 수 있는 호수를 바로 옆에 둔 로맨틱한 분위기의 귀족저택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이 성의 내부장식 또한 잘 보존되어 있어 19세기 당시의 인테리어 취향을 알 수 있다.

크라피나 (KRAPINA) (60km / 50분)

크라피나(Krapina)는 유럽에서 가장 큰 초기 구석기 시대의 유적으로 유명하다. 뼈 화석이 발견된 지역은 3천년 전 네안데르탈 인이 살았던 지역으로 추정된다. 카르피나 네안테르탈 박물관에서는 멀티미디어 디스플레이로 그들의 이야기를 보고 들을 수 있다.



온천지역

(50-115km / 60-100분)

자그레브의 북부지방은 온천수가 풍부하여 휴양지로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최근 새롭게 생긴 모던 리조트, 스베티 마르틴 (Sveti Martin) 스파는 크로아티아에서 가장 큰 워터파크와 500평(1,700 m²)이 넘는 웰니스센터가 있다. 자고리에에서도 바라즈딘, 크라피나, 스투비차(Stubica), 그리고 투헬(Tuhelj) 지역의 스파는 치료를 위한 온천수로 유명하다. 수영 외에도 이곳의 스파는 스포츠, 훌륭한 음식, 그리고 문화 체험까지 다양한 종류의 재미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휴식과 재미가 잘 조합된 이곳은 가족여행지로 훌륭한 선택이 될 것이다.



북부지역

마리아 비스트리차 (MARIJA BISTRICA) (40km / 50분)

매년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성모마리아의 성지를 찾는다. 아름다운 눈 속의 성모(Svete Marije Snježne) 교회는 15세기에 만들어진 성모마리아와 아기 예수의 조각상으로 유명하다. 터키 군으로부터 이 조각상을 숨기고 죽을 때까지 조각상을 숨긴 장소를 밝히지 않은 한 신부에 의해 성모상은 지켜질 수 있었다. 그 후 수 년이 지난 뒤, 이 조각상은 치유의 힘이 있다고 여겨지는 조각상의 빛에 의해 발견되었다.



쿠므로베츠 (KUMROVEC) (60km / 60분)

요시프 브로즈 티토(Josip Broz Tito)가 태어난 곳으로 유명한 쿠므로베츠(Kumrovec) 마을은 독특한 스타로 셀로(Staro Selo) 가옥이 있는 민속촌으로 유명하다. 이곳에서는 19세기 자고리에 지방의 처가지방의 가옥, 스타로 셀로를 볼 수 있다. 가옥 내부에는 당시 이 지역 노동자 계층이 매일 사용했던 일상용품이나 연장이 전시되어 있다. 전통가계와 수공업품 가게를 구경할 수 있고, 직접 도자기물레를 돌려볼 수도 있다.



동부지역



론스코 폴레 (LONJSKO POLJE) (116km / 110분)

크로아티아에서 가장 큰 습지, 론스코 폴레(Lonjsko Polje)는 이례적으로 풍부한 식물군과 동물군을 보유하고 있다. 야생동식물의 보호지역인 이곳은 싸이클링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인 곳이다. 관광객은 이곳에서 오두막을 빌릴 수도 있다. 4월과 8월 사이에는 아프리카에서 다시 이곳을 찾는 크로아티아 황새를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한다. 매년, 전체 개체 수의 1/3이 다시 이곳을 찾는다. 치고츠(Čigoč)의 한 마을에는 대부분의 집이 적어도 한 개 이상 동지를 틀 자리를 황새에게 내어준다. 매년 봄, 다시 돌아온 황새 커플은 작년과 똑같은 집에 다시 동지를 튼다.



자그레브 동부 전원지역은 드넓은 평야와 때묻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가진 광활한 지역이다. 그 사이의 크고 작은 언덕에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와인 양조장이 번성했다.

안다우토니아 (ANDAUTONIJA) (15km / 26분)

슈치타르예보(Šćitarjevo)의 조용한 마을은 한 때 로마의 중요 도시였다. 서기 1세기에 지어진 이 곳은 사바(Sava) 협곡을 지나는 무역로의 교차지점이었다. 오늘날에는 자갈로 만들어진 거리와 바닥의 대리석을 데우는 방식의 고대 공중목욕탕이 있는 고고학적 유적을 따라 산책할 수 있다. 매년 4월, 안다우토니아의 날(Dani Andautonije)에는 로마를 테마로 한 여러 행사와 실험적인 고고학 워크샵 등이 개최된다. 고대의 음식과 음료의 조리법이 재연되고 아이들은 로마 테마의 게임에도 참여할 수 있다.

남부지역



자그레브 남부 지방의 자연은 좀 더 극적이다. 산은 더 커지고 숲은 더 우거지며 바위가 많은 풍경이 펼쳐진다. 이 아름다운 지역의 하이라이프는 호수와 폭포이다.

슬룬 (SLUNJ) (10km, 95분)

슬룬(Slunj)은 자그레브에서 플리트비체(Plitvička jezera)로 가는 길목에 들리기 딱 좋은 곳이다. 코라나(Korana) 강 상류에 위치한 이 지역에는 코라나 강의 지류, 슬룬치차(Slunjčica)를 동력으로 하는 전통 물레방아가 유명한 라스토케(Rastoke)가 있다. 관광객은 물길과 나무 다리로 만들어진 그림 속 미로 같은 곳을 산책하거나 강 옆의 시골집 식당에서 갓 잡아 올린 송어요리를 점심으로 맛볼 수 있다. 스릴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코라나 강의 급류 래프팅을 즐길 수도 있다.



플리트비체 호수 자연공원 (NACIONALNI PARK PLITVIČKA JEZERA) (130km / 120분)

크로아티아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이자 자연의 경이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플리트비체 호수 자연공원은 시선을 사로잡는 폭포와 터키석의 빛을 띤 호수로 유명하다. 이곳은 디나라 산맥(Dinaridi)의 아름다운 원시림, 초르코바 우발라(Čorkova Uvala)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자연공원의 입장료에는 가장 큰 호수를 지나는 보트 승선료가 포함되어 있다. 전기로 움직이는 이 보트는 공원 동쪽의 아름다운 두 장소를 이어준다.



서부지역

플레시비차 (PLEŠIVICA) (45km, 50분)

같은 지명의 언덕으로 둘러싸인 도시, 플레시비차(Plešivica)는 와인이 유명한데 소몰리에가 찾는 와인루트가 많이 있다. 1년내내 방문객이 많은 플레시비차지만 특히 10월이면 이곳에서 만드는 포르투기자츠(Portugizac, 어린 포도로 만들어 향이 강한 레드와인)을 맛보려는 사람들로 붐빈다.



돌리나 카르디날라 (DOLINA KARDINALA)

크라시츠(Krašić)는 쿠프치나(Kupčina) 협곡에 자리잡은 경치 좋은 도시이다. 청동기 시대 거주지였으나, 20세기가 지난 오늘날에는 '추기경의 협곡'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다. 크로아티아에서 잘 알려진 추기경, 알로이지에 스테피나츠(Alojzije Stepinac)는 고위성직자가 많이 태어난 크라시치(Krašić)에서 첫 미사를 가졌다.



사모보르 (SAMOBOR) (27km, 30분)

크로아티아 내륙에서 가장 잘 보존된 역사도시 중 하나인 사모보르(Samobor)는 자그레브 시민이 가장 좋아하는 주말 여행지이다. 전통예술과 공예가 이 도시의 자랑거리이지만, 아주 맛있는 '크렘슈니타(kremšnita)' 크림케이크가 여행객의 가장 큰 흥미거리이다. 사모보르는 특히 2월에 가장 활기가 넘치는데 주민들이 '파슈니크(fašnik)'라고 부르는 축제 기간이기 때문이다. 주요 광장과 광장을 둘러싸고 있는 거리에서는 가면과 특별한 의상을 입고 퍼레이드를 하는 사람과 이 장관을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서부지역



자그레브에서 남서쪽으로 향하다 보면 플레시비차의 멋진 언덕에서 출발해 고르스키 코타르(Gorski Kotar)의 늘푸른 숲과 코발트 블루빛의 아드리아 해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변화하는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리예카와 오파티야 (RIJEKA I OPATIJA) (160km / 110분)

크로아티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이자 가장 큰 항구를 가지고 있는 리예카(Rijeka)는 바빠 돌아가는 대도시의 분위기와 지중해의 joie de vivre(삶의 기쁨)이자 특유의 느긋함이 적절하게 섞인 곳이다. 거기에 크로아티아 관광의 보석이라 할 수 있는 오파티야(Opatija)가 겨우 15분 거리에 있다. 교통이 편리하고 일년 내내 온화한 기후를 가진 오파티야는 19세기 후반,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지배층에게 사랑받는 관광지가 되면서 유명해졌다.

크바르네르와 고르스키 코타르 (KVARNER I GORSKI KOTAR)

크바르네르 만(Kvarnerski zaljev)이라 알려진 아드리아 해의 해변은 자그레브에서 겨우 90분 거리에 있다. 자그레브에서 아름다운 고르스키 코타르 지역을 지나 이곳으로 향하는 풍경 자체가 마치 그림과도 같다. 신록이 아름다운 산기슭에는 특히 음식에 대한 전통이 잘 보존된 마을이 군데군데 흩어져있다. 산의 끝자락이 아드리아 해와 만나는 장면의 감동을 능가하는 것을 찾지란 쉽지 않을 것이다. 크르크(Krk), 초레스(Cres), 그리고 로신(Lošinj) 섬은 크바르네르의 보석이라 할 수 있다.



숙박시설

잠만 자는 곳이 아닌 여행이 주는 또다른 재미거리

더 알아보기



가장 오래된 호텔 1827년에 처음 문을 연 야게르horn (Jägerhorn)은 현재까지 운영되는 가장 오래된 호텔이다.



유적호텔에서 유스호텔까지

자그레브의 숙박시설은 5성급호텔에서, 국제적인 호텔체인, 개성이 강한 호텔, 그리고 렌탈 아파트까지 그 종류가 다양해서 누구라도 본인에게 맞는 적절한 시설을 찾을 수가 있다. 많은 유적호텔에서는 독특한 전통적인 분위기를, 부티호텔과 특별한 컨셉의 호텔은 창의적이고 개성적인 분위기를 제공한다. 무엇보다 종류에 상관없이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그레브를 알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좋은 출발점이 된다.



둘러보기

유용한 정보



자그레브 도착하기

여행지로서 자그레브의 장점 중의 하나는 바로 편리한 위치이다. 중부와 남동부 유럽, 그리고 아드리아 해의 중간에 자리잡은 자그레브는 교통의 중심지일 수 밖에 없다. 항공교통과 지상교통에 상관 없이 자그레브는 크로아티아의 주요 도시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의 수도와도 이어지는 편리한 교통망을 가지고 있다. 공항은 도심과 15km정도 떨어져 있어 버스나 택시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자그레브의 중앙기차역은 반엘라치치 광장에서 걸어서 10분, 트램으로 두 정거장 거리이다. 버스터미널 또한 도심에서 가깝고 트램으로 쉽게 갈 수가 있다.

프라뇨 투즈만 국제공항

(ZRAČNA LUKA FRANJO TUĐMAN)
Ulica Rudolfa Fizira 21, Velika Gorica
tel. 060 320 320
www.zagreb-airport.hr
공항과 버스터미널을 오가는 버스 시간표 확인:
www.plesoprijevoz.hr

버스터미널 (AUTOBUSNI KOLODVOR ZAGREB)

Avenija Marina Držića 4
tel. 060 313 333
www.akz.hr

중앙기차역 (GLAVNI ŽELJEZNIČKI KOLODVOR)

Trg kralja Tomislava 12
tel. 060 333 444
www.hzpp.hr

자그레브 카드 (ZAGREB CARD)

자그레브 카드는 24시간용과 72시간용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모두 무료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고 6개 주요 관광지과 박물관, 식당, 가게 등 70곳이 넘는 곳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www.zagrebcard.com 에서 확인 가능하다.

중앙우체국

Jurišićeva 13
tel. +385 166 26 452
(월요일 - 금요일: 07.00-20.00; 토요일: 07.00-14.00)
Branimirova 4
tel. + 385 149 81 550
(월요일 - 일요일: 07.00-24.00)

미팅과 컨벤션

자그레브는 크로아티아의 주요 컨벤션센터이다. 자그레브에서 개최되는 컨벤션, 회의, 그리고 다른 형태의 모임이 늘어나면서 자그레브는 컨벤션 도시로서 자그레브의 명성이 올라가고 있다. 많은 수의 현대식 그리고 역사적 회의 장소와 다양한 선택지의 호텔, 풍부하고 다양한 음식, 그리고 문화체험, 그리고 높은 수준의 전문가 컨벤션 도시, 자그레브의 가장 큰 장점이다. 거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요 관광지도 가까이 있어 모든 것을 한번에 누릴 수 있는 컴팩트한 도시라 할 수 있다. 더 많은 정보는 www.meetinzagreb.h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폐

크로아티아 화폐는 쿠나(Kuna, HRK)이다.

화폐종류:

동전: 1, 2, 5, 10, 20, 50 리파(Lipa); 1, 2, 5 쿠나
지폐: 10, 20, 50, 100, 200, 500, 1,000 쿠나
1쿠나 = 100리파

현금은 환전소, 은행, 우체국, 호텔에서 환전 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소매 업체 및 서비스 업체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국경일

1월 1일 - 신정
1월 6일 - 공현 대축일
부활절
부활절 이튿날
5월 1일 - 노동절
5월 30일 - 자주독립일
성체 축일
6월 22일 - 파시스트 저항의 날
8월 5일 - 조국전승감사의 날과 크로아티아 국방의 날
8월 15일 - 성모승천일
11월 1일 - 만성절
11월 18일 - 조국독립전쟁 희생자 추모의 날과 부코바르 그리고 쉬카브르나 희생자 추모의 날
12월 25일 - 성탄절
12월 26일 - 성스테판의 날

기준시간

GMT + 1시간
공식언어
크로아티아 어

날씨

자그레브는 사계절의 온화한 내륙성 기후를 가지고 있다. 여름에는 평균 약20-25°C의 온도로 덥고 건조하며, 겨울은 평균 약1-5°C의 온도로 상당히 춥다. 가장 더운 달은 1년 중 7-8월이고, 가장 추운 달은 1-2월이다.

공급전압

220v, 50Hz.
유럽표준 2핀 플러그.
식수
수돗물 음용가능.

응급 전화번호

112 응급상황
192 경찰
193 소방
194 응급차
11802 국제정보안내
18981 일반정보안내
0800 53 53 자그레브 관광안내
(자그레브 국내통화 무료)

인터넷

자그레브 시내에는 20곳이 넘는 Wi-Fi 핫스팟이있어 시에서 제공하는 무료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핫스팟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

여행정보

방문자 센터

Centar za posjetitelje

Trg bana J. Jelačića 11

tel. +385 1 48 14 051, +385 1 48 14 052,

+385 1 48 14 054

e-mail: info@infozagreb.hr

www.infozagreb.hr

방문자 센터

Centar za posjetitelje

Franjo Tuđman 공항

Ulica Rudolfa Fizira 21, Velika Gorica

tel. +385 1 6265 091

e-mail: airport@infozagreb.hr

로트르슈차크 타워 여행정보센터

Turistički informativni centar Kula Lotrščak

Strossmayerovo šetalište

tel. +385 1 48 51 510

e-mail: lotrscak@infozagreb.hr

자그레브 기차역 여행정보센터

Turistički informativni centar

Zagreb Glavni željeznički kolodvor

Trg kralja Tomislava 12

tel. +385 99 2109 918

e-mail: gkolodvor@infozagreb.hr

버스터미널 여행정보센터

Turistički informativni centar

Autobusni kolodvor

Avenija Marina Držića 4

tel. + 385 1 61 15 507, +385 1 61 15 508

e-mail: autobusnik@infozagreb.hr

출판정보

출판인

자그레브 관광청



출판인 대리

Martina Bienenfeld, Ph.D.

디자인, 레이아웃, 일러스트

Superstudio, Zagreb

글

Ivo Payer

Bojan Krištofić

자그레브 관광청

번역 및 교정

Croatia Consulting

인쇄

ISBN 978-953-228-101-9

참고:

출판인은 출판물의 정보가 배포될 당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으며, 오류 및 출판 이후의 변경 내용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자그레브 관광청

Kaptol 5, 10000 Zagreb

www.infozagreb.hr

info@infozagreb.hr

사진

Ana Markezić / Arhiva TZGZ
Antonio Bokšić / Arhiva TZGZ
Arhiva Aquae Vivae
Arhiva Backo Mini Express
Arhiva City Center One
Arhiva Hotel Esplanade Zagreb
Arhiva MHZ
Arhiva Nacionalni park Plitvička jezera
Arhiva Park prirode Medvednica
Arhiva Superstudio
Barbara Šarić / Arhiva Superstudio
Bojan Haron Markičević / Arhiva HTZ
Cod.8609, fol.17v. / Arhiva ÖNB/Wien
Dalibor Urukalo / PIXSELL
Davor Đopar / Arhiva TZ grada Samobora
Davor Puklavec / PIXSELL
Davor Rostuhar / Arhiva TZGZ
Domagoj Blažević / Arhiva HTZ
Domagoj Kunić / Arhiva TZGZ
Goran Jakuš / PIXSELL
Goran Stanzl / PIXSELL
Goran Vranić / Arhiva Hrvatski muzej naivne umjetnosti
Goran Vranić / Arhiva TZGZ
Grgur Žučko / PIXSELL
Hrvoje Brigljević / Arhiva TZGZ
Igor Kralj / PIXSELL
Ivo Biočina / Arhiva HTZ
Ivo Pervan / Arhiva TZGZ
Josip Grđan / Arhiva TZ grada Samobora
Julien Duval / Arhiva TZGZ
Jurica Galoić / PIXSELL
Katarina Gavrilica / Arhiva Dioralop
Luka Šangulin / Arhiva Pločnik
Marija Gašparović / Arhiva Design District Zagreb
Marija Gašparović / Arhiva TZGZ
Marko Jurinec / PIXSELL
Marko Lukunić / PIXSELL
Marko Prpić / PIXSELL
Marko Vrdoljak / Arhiva TZGZ
Matija Dronjić / Arhiva Etnografski muzej
Nina Đurđević / Arhiva Katapult promocija
Nina Đurđević / PIXSELL
Patrik Macek / PIXSELL
Petar Glebov / PIXSELL
Petar Trinajstić / Arhiva TZ grada Opatije
Roko Bahat / Arhiva Mali piknik
Sanjin Kaštelan / Arhiva TZGZ
Sanjin Strukić / PIXSELL
Sergio Gobbo / Arhiva HTZ
Srđan Vuković / Arhiva Muzej prekinutih veza
Stipe Surać / Arhiva HTZ
Studio Hrg / Arhiva Hrvatski skijaški savez
Tomislav Miletić / PIXSELL
Tomislav Šklopan / Arhiva TZGZ
Vedran Metelko / Arhiva HTZ
Višnja Arambašić / Arhiva TZGZ
Željko Lukunić / PIXSELL